The Korea Times Toronto

(일간) No. 559 1981년7월7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Tuesday, July 7, 1981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토론토인쇄인 : 김 형 근

The Korea Times of Toronto (or Hankookilb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Supscription fee $90. per year, $8.00 per Month.

ISSN 0319 2962

구독료 : 연$90, 월$8.00

SECOND CLASS MAIL N P 0184

이민정책의 새 전망

기술이민 촉진·가족이민 제한

═이민성 보고서 주장═

(오타와) 캐나다 정부는 앞으로 가족이민등 초청케이스 이민보다 기술자 이민을 더 받아야 한다고 연방노동이민성의 보고서가 밝혔다.

이 보고서는 80년대의 심각한 기술자 부족현상에 대비, 5~6만명의 독립이민자를 받아들이고, 대신 기술이 없는 가족초청 이민자 유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이드·액스워디 고용·이민성장관이 발표한 이 보고서는 섬유산업 보호정책을 비난, 외국 석유류에 부과하는 쿼터제도는 국가경제에 8천5백만달러의 손해를 주는 반면, 불과 6천명의 고용을 유지한다고 지적했다.

시행에 앞서 내각의 승인이 필요한 이 보고서는 80년대 직장에 진출하는 노동력중 3분의 2는 여자이며, 서부 일부도시에서는 원주민 인디안이 새 노동력의 3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문화 교류
한미문교장관회담

(서울7일연합) 공식방문차 미국에 들른 이규호 한국 문교부장관은 미국 문교장관 터렐·벨과 회담을 갖고 교육, 문화교류에 관한 각서를 교환했다고 7일 서울에서 발표됐다.

이날 회담에서 다루어진 주의제는 교수및 학생교환, 미국대학의 한국학과 증설, 한국 영어교사 훈련, 연구서적및 자료교환, 국민학교학생 상호방문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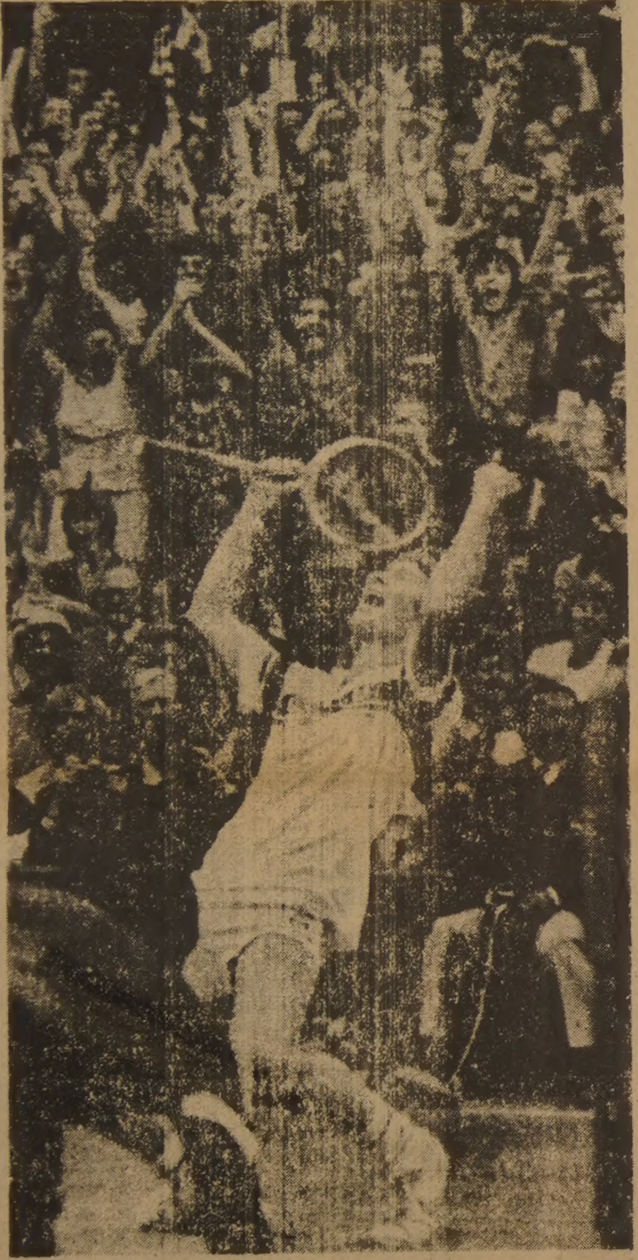
한·미 문교장관 각서에는 내년도에 있을 한·미 와교 100주년 기념행사 관제도 포함됐다고 문교대변인은 전했다.

미국인이혼율 3배 증가

1979년도 미국의 이혼율이 20년전인 1959년보다 약3배가 늘어났다고 정부통계가 밝혔다.

79년도의 이혼건수는 118만에 달해 78년보다 4.5%가 증가하고 59년도 보다 3배가 늘어났다.

79년도 이혼자의 경우 평균결혼 생활은 약6.8년으로 나타났다.



◇숙적 보그를 꺾고 윔블든 왕자가 되는 순간 환희의 절정을 누리는 매켄로군(미)

존·매켄로 우승

여자 : 에버트 3연승

(윔블든) 코트의 말썽꾸러기이며 독설가인 존·매켄로가 윔블든 5연패의 비욘·보그를 물리치고 윔블든의 새로운 왕자가 되었다.

4일 촬스 황태자의 약혼녀 레디 다이아나가 참관한 가운데 센타코트에서열린 남자단식 결승에서 미국의 매켄로는 스웨덴의 비욘·보그를 4:6, 7:6, 7:6, 6:4로 물리쳐 보그의 윔블든 41게임 연승기록을 깨고, 미국의 7월4일 독립기념일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이날 매켄로는 결승후 남자단식 우승자를 위한 만찬회에 불참해 대회당국자를 또 곤경에 처하게 만들었다. 윔블든대회 주최측은 준결승에서 일어난 매켄로의 불미스런 행동에 9,400달러 벌금을 부과했었다.

한편 3일 열린 여자단식에서는 미국의 크리스·에버트가 프랑스·오픈 우승자 체코의 맨디코바를 6:2, 6:2로 물리쳐 프랑스 오픈의 패배를 설욕, 세번째 윔블든 트로피를 차지했다.

◇윔블든대회 우승자들

남자단식

존·매켄로(미국)

여자단식

크리스·에버트(미국)

남자복식

피터·프레밍(미국)

존·매켄로(미국)

여자복식

나브라틸로바(미국)

쉬리버(미국)

혼성복식

맥밀란(남아프리카)

베티·스토브(화란)

김창훈·김홍식 1위
몬트리얼 골프대회

(몬트리얼정관성지국장) 몬트리얼한인골프회는 5일 브루몽골프장에서 회원 21명이 참가한 가운데 연례골프대회를 가졌다.

이날 상오 김창훈 총영사와 오영 골프회장및 토론토 조성호 무역관장의 티·오프로 시작된 대회에서 그로스 챔피언은 92점을 친 박명용씨 차지가 됐다.

원래 1등은 85점 동점을 친 김홍식씨와 김종영사였으나 모두 우승트로피를 양보, 박씨에게 영광이 주어졌다.

넷 1등은 박종구 한인회장(95), 롱게스트상은 유동훈, 니어리스트상은 오영씨가 차지했다.

달러가치 유지 부작용
외환보유고 최저기록

캐나다 달러가치를 미화 83센트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연방정부 노력은 캐나다의 외환보유고를 지난10년간중 최하의 상태로 떨어지게 했다고 야당이 비난했다.

정부의 외환보유고는 6월들어 1,360만 달러나 줄어 30억6천만달러 수준에 이르렀다고 재무부는 밝

정부의 외환보유고는 6월들어 1,360만달러나 줄어 30억6천만달러 수준에 이르렀다고 재무부는 연방의회에서 밝혔다.

연방정부는 캐나다 달러가치 하락을 막기위해 국제외환 보유고를팔아 캐나다 달러를 사들여 왔다.

"이것이 바로 캐나다달러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냐?"고 보수당의싱클레어·스티븐의원은 정부를 공격했다.

그러나 재무성관리 미첼·캘리는 "정부는 달러보유고 하락이 두려운것이아니다 캐나다 달러의 가치하락이 가져오는 인플레이션의 충격이 염려되는것"이라고 응수했다.

미국의 고금리 정책은연쇄적으로 캐나다에 영향을 미쳐 정부는 높은수준의이자율을 지키고 있다.

미국의 이자율 수준을따르지 않으면 많은 캐나다내 예금이 미국은행으로유출된다.

6일 캐나다 1달러는 미화 83.2센트에 거래됐다.

미터법
사용촉진

캐나다 연방정부는 토론토지역의 모든 야채·고기등 그로서리 제량 단위는 내년 11월30일까지 파운드체제에서 킬로그람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온타리오주정부에 통고했다.

연방정부 지시서는 토론토지역을 4단계로 구분, 미터법으로 바꿀 것을 명시했다.

첫번째 지역은 스카보로와 미시사가 지역으로 내년 4월30일까지, 두번째 지역은 이토비콕과 다운타운 동쪽지역으로 내년 6월말까지, 세째지역 노스욕은 8월말까지이다.

나머지 지역은 11월말까지이다.

연방정부는 83년까지 전국서 미터법을 사용토록 한다.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콜라속에「지렁이」
교포가 마시다 발견

30도를 오르내리는 더위를 식히려고 콜라를 마시던 최규흘씨는 병안에서 벌레를 발견, 대경실색했다.

1712 퀸·스트릿·이스트에서 세탁소를 경영하는 최씨는 7일 낮 12시30분께 이웃 맥스·밀크에서 10온스짜리 소형콜라 1병을 사서 마시다가 길이 1.5cm가량의 나무조각같은 물체가 병속에 있음을 발견했다.

최씨는 이것이 지렁이의 한 몸부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코카콜라에서 지렁이가 나왔다는 사실은 무척 놀랍다"고 말한 최씨는 콜라회사에 이 사실을 통보, 회사측은 직원을 보내 수거하겠다고 말했으나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CITY-TV에서는 카메라를 동원, 상세히 취재해 갔다.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한인교회팀 우승

한인회 야구, 준우승 연합교회

토론토한인회 주최 81년도 한인야구대회에서 한인교회팀은 3연승을 노리는 연합교회팀을 누르고 우승했다.

4일밤11시 코로네이션·팍에서 야간조명이 켜진가운데 진행된 결승전에서한인교회는 연합교회A를 20:5의 큰 스코어 차이로물리쳤다.

두팀은 지난3년간 계속 결승, 또는 준결승에서 만나 치열한 게임을 벌였으나 2년간 연합교회팀이 우승했었다.

한인교회의 천경회 투수는 완숙한 볼·컨트롤로연합타선을 5점으로 막은대신 함철호가 리드하는 한인타선은 연합마운드를 초토화, 대거 20점을 따내 2년간의 패배를 설욕 했다.

이날 대회사상 최대인12개 참가팀은 A·B조로 나뉘어 예선 토너먼트를 벌였다.

준결승에서 A조의 한인교회팀은 청솔회를 5:2로 눌렀고, B조의 연합A팀은 천주교회팀에 무려25:1로이겨 결승에 올랐다.

응원상을받은 청솔회팀의 선수가족들은 익살스런 율동과 조화있는 응원전으로 팍에모인 약 500명의교민들을 즐겁게 했다.

시상내용과 전적은 다음과 같다.

◆A조예선

한인교회 4:2 UT

해병 12:11 연합B

한인교회 12:5 해병

청솔 13:3 에덴침례

◆B조예선

연합A 11:5 동부장로

한인장로 6:3마이티(한인교회B팀)

연합A 12:6 한인장로

천주 3:0 임마누엘

◆준결승

한인교회 5:2청솔

연합A 25:1 천주

◆결승

한인교회 20:5 연합A

우승 : 한인교회

준우승 : 연합교회

장려상 : 에덴침례교회

응원상 : 청솔회

최우수선수상 : 천경회 (한인투수)

우수선수상 : 박경호 (연합A투수)

감투상 : 김일상(천주)

공격상 : 함철호(한인)

수비상 : 조재겸(해병)

미기상 : 강응(천주교)

각종보험

백 용 빈

SUN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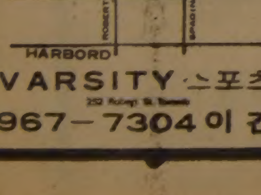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B)497-3800
(R)284-9052

운동구점 개업

여름휴가 특별세일

①GOLF
●Slazenger Golf Shoes
Reg. $71(×) 세일가격 $49.00
●Hush Puppies Golf Shoes
세일가격 $36.98
②단체유니폼 마춤
각 동창회및 교회주문 환영
③각종 트로피및 감사패 주문
④ROLLER스케이트
사이즈 : 1 to 5, $39.00
Dominion Roller스케이트 $78.00



VARSITY 스포츠점

967-7304 이 건 영

KAWAI KEYBOARD CENTRE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피아노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카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카나다 통계국 발표〉

■카나다 최고이고, 유일한 한국인 딜러가 교민들에게 특별 할인 판매 합니다.

MARKHAM PLACE MALL
2900 STEELES AVE. EAST. THORNHILL
881-8211
윤 호 섭

• 생명교육보험
• RRSP(세금공제 은퇴저축)
• 은퇴연금
• 사업보험
• 화재, 자동차보험

김 용 랑
(B) 482-0166
(R) 624-2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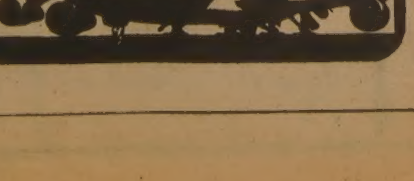
IMPERIAL LIFE
covers you for life

제일여행사

■모국방문 특별요금
KAL (뉴욕 또는 LA 경유)
CP, JAL (VANCOUVER 경유)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각종단체 관광요금
■여권, VISA 수속 서비스
■방문초청, 이민초청
(제반수속 안내및 작성)

유 지 원

621 BLOOR ST. W.
(B)535-2377
(R)366-0864



동남아에 무기수출 용의

전대통령, 5개국 순방 거의 마쳐

(마닐라7일=연합) 필리핀을 방문중인 전두환 대통령은 7일 한국은 동남아조약기구(ASEAN)5개회원국에 국방용 무기를공급할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전대통령은 한국은 동남아기구와모든 분야에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서약한 점을 강조하고, 한국은 방위무기생산에서 상당한 기술적 수준에 올랐다고 말했다.

전대통령은 2주간의 동남아 방문에서 무기주문을 받지는 못했다.

"한국은 동남아기구에 가입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지만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회원국의 파트너가 되고 싶다"고 대통령은 말했다.

대통령은 마닐라 방문을 끝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등 5개국 순방을 완료, 9일귀국한다.

이란정부 요청 대사관직원 감소

(서울8일=연합) 이란정부는 주 이란 한국대사관 직원을 외교관 3명, 비외교관 4명등 7명으로 줄이라고 심기철 대사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외무부는 8일 "전통적 우방국인 이란이 이같은 요청을 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논평했다.

외무부는 이란측의 요청에 따르더라도 양국간 무역, 경제협력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오순절 한글학교 개강

오순절장로교회(목사 장세택)의 오순절한글학교는 매주 토요일 상오10시부터 하오3시까지 한글, 예능(음악, 미술, 무용)및 동양예절을 가르치고 있다. 수강료는 월 10달러.

교장대리 최영덕, 교사는 최영란, 이용원, 이홍수, 장은주, 예능교사는 이경선, 장은주씨.

자랑스런 소녀

최고점 졸업 신지현양

여기 자랑스런 교포의딸이있다.

한국서 세브란스병원 엑스레이 기사로 있다가, 75년 1월 캐나다 이민후도내내 토론토에서 엑스레이기사로 병원근무를 계속중인 신인복씨(42)의 장녀 지현양(14)은 이번 존·잉그리쉬·퍼블릭스쿨 8학년을 톱(평균 90점)으로 졸업, 트로피를 받았으며, 그이름이 학교에 영원히새겨지는 영예를 차지했다.

또한 지현양은 이 학교에서 매년 학년톱을 계속 차지해 왔다.

7세때부터 피아노를 계속해온 지현양은 음악재질도 상당하며, 현재 로열컨서바토레에서 지도를 받고있다.

어머니 김영자씨는 가게경영, 밑으로 두 남동생을 둔 지현양은 3남매의 맏이이다.

◇마음의 벗 피아노 앞에서 졸업날 받은 상패를 들고 앉은 신지현양

교 민 동 정

◆홍중표 (한인장로교회교육위원장)=교회학교 여름캠프를 실시한다. 어린이부는 7월2~6일 Pomuva캠프(헌츠빌)에서, 학생부는 8월21~24일 Pine Orchard 캠프(뉴우마켓)에서, 청년부는 7월31~8월3일 같은곳에서….

◆서춘원(사업)=그동안운영해오던 바라이어티스토어를 청산, 새로이 한국식품 서부지점을 인수받아 지난주부터 경영을 시작했다.

서씨는 휘문 중고교를나와, 일찍 아르헨티나에서 식품점 경영을 한바있어그때 경험을 되살려 친절과 봉사로 손님들을 맞이하겠다고 다짐한다.

◆김웅섭(은하보석 사장)=코리아타운 중심가에서 은하보석상 경영중 지난달 26일 프랑스의 고급시계, 펜, 라이터와 가죽 제품을 생산하는 Curtier회사와스위스의 Concord 시계제조회사로부터 판매권을 얻었다. 이 딜러쉽을 얻기는 한인교포사회에서 처음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주 연방세무성으로부터 보석가공 허가통보를 받았다. 이 라이센스는 김씨가 3년전부터 보석류를 가공, 그간 사업실적을 올린 결과이다. 김씨는 앞으로 다양한 상품을 구입 가공, 더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교민들에게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선남(저구장 경영) =오는9일 가족을 동반, 한국을 또 방문한다. 그는 한국에서 약 한달간 머물 예정이다.

◆이주연(소프라노)=지난 4월 에드몬톤의 에드몬톤·심포니·오케스트라와협연, 오페라 엘리야의 주연역을 맡았고 5월말경 캘거리에서 캘거리·필하모닉과 말러의 교향곡 2번 코랄·심포니 연주를 가진 이여사는 현지 매스콤으로부터 호평을 받아 흐뭇하다.

에드몬톤·선지는 4월5일자 신문에서"래리·쿡지휘의 엘리야 공연중 박력있고 잘 공명되는 뛰어난 재능을가진 소프라노임을 증명했으며 연기 면에서도 가사전달에 가끔 문제가있는점을 제외하고는 훌륭했다."고 평했다.

또한 캘거리·선지는 5월26일자에서 캘거리·필하모닉의 말러교향곡2번 공연이 성공한 이유중, 하나는 탁월한 소프라노인 이

◇소프라노 이주연씨

씨의 힘있는 목소리때문이며 특히 어려운 고음처리에서 이씨는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다고"고 말했다.

◇미스·비키니 시나·홀양이 수많은 남성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미스·비키니 선출

CHIN의 국제피크닉 성료

이태리계 CHIN라디오방송국 주최 CHIN—불손국제 비키니 컨테스트가 지난4일 토론토 센터아일랜드에서 10만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연렸다.

제15회 대회를 기념하기위해 15명으로 참가자수를 제한한 이 비키니 대회에서 미시사가출신 시나·홀(23)양이 영예의 81년도 미스비키니에 당선됐다.

CHIN이 매년 주최하는 국제 피크닉에는 2,000 여명 에트닉 공연그룹들이세계각국의 민속춤을추고, 노래를 불러 복합문화제전을 방불케 한다.

4일의 대회는 이태리 톱싱거 봄·솔로의 순서를 하이라이트로 끝을맺고 5일에도 계속 각종 음식 먹기 손톱깎기 경주등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기쁜 소리 — 한번 들리세요 444-4011을 —

망하는 원인

—안 상 엽—

우리의 옛 속어에 "중국사람은 먹어서 망하고, 한국사람은 입어서 망한다"는 말이있다. 물론 우리 속담에 "수염이 다섯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는 말도 있으나 틀림없이 중국인 에게는 먹는 음식이 큰 관심거리였고 한민족 에게는 입는 옷에 더욱 관심이 컸던것은 사실이다. 먹고 입는일은 인간생활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일 것이다.

된장국물과 냉수한 그릇을 마시고 나오면서도 속을 뒤집어 얹는 "트림"을 우렁차게 끄집어올리면서이빨을 쑤셔야 부요한 양반인체한 한국인의 생활 풍경을 엿보아 사실 먹는것 보다는 조금 다른점이 강조된 것만은 사실이다. 그래서 인지 세계 어느도시에 가도 중국음식점은 서있고, 그것도 도시의 중심지인 시청 뒤에 자리를 잡고있다. 그래서인지 "차이니스"하면 "음식점"과 "세탁소"가 별명같이 따르고, 요사이에는 "코리안"하면 한국제품의 "의복"과 식품점과 구멍가게사업이뒤따르는 셈이 되었다. 망할정도로 강한 관심을 둔 생활양식의 발전과 그 결과이기도 하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생활환경이 바뀌면서 관심도 달라지고, 흥망의 원인도 변한것 같다.

이야기를 좀 돌린다면, 나는 어느날 전체 교인의 야외예배와 야유회를 위해 미리 어느 공원에 들렀으며, 또한 담당 작업인을 만나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는 점잖은(?)농담으로 "한국인은 공원에서 먹다 남은 음식은 다 버리는 관습(Custom)이 있느냐?"고 정중하게 문의해 왔다. 나는 "그런 관습(Culture)는 없다"고 여지없이 대답을 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다음말은 "지금 세상에는 음식이 없어 죽는 문제와, 음식을 버려서 "가베이지"(거름)을 치우는 두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쓴 웃음으로 말을 맺었다.

인간인 우리가 이 땅으로 옮겨와서 사는 동안에 가족과 친구들이 같이 모여 마음을 터놓고 가장 기쁜 시간을 갖는 기회가 있다면 바로 아름다운 공원에나아가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좋은 음식을 나누고, 기쁜 대화를 하는 시간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편리하고 좋은집들이 있으나, 불전과 불편이많은 별장과, 야영장과 공원을 찾아가 고기를 구워먹고 마시면서 뛰는것이 현대인의 생활양식중의 한 멋이기도 하다.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이 장작 패고, 쌀밥 먹는다"는 속담같이 가게와 집에 먹을것과 마실것이 쌓여있고 은행잔고에 얼마의 돈이 들어있는 여유 때문인지, 혹은 실직해서 구호금을 타러 가면서도 "캐딜락"을 타고가는 "흑인문화"를 배우고 본 따서인지 모르나, 왜 다 마시지도 먹지도 못할 음식을 터치고 퍼담아 젓가락으로 쑤시고 뒤적거리다 침을 묻혀 쓰레기통에 집어던지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간다. 그러기에 한국인이 놀다간 공원에는 쓰레기통이 넘치고, 축하연후의교회 문밖에는 쓰레기가 높이 쌓인다는 결론이다.

허리를 굽혀 떨어진 하나의 이삭이라도 줍는 사람이 복받고 발전이 있지, 음식을 썩히고 버리고 짓밟는 사람은 반드시 가난과 패망을 맛보는 법이다.

지구상에는 하루에도 평균 5백명의 사람이 먹을것, 마실것이 없어 뼈가죽이 등골에 붙어 굶어 죽는데, 나와 우리는 축복을 받았다고 허세를 부려서는 패망의씨를 심는 일이다. 이는 만물을 선하게하신 창조주를욕되게 하며, 이웃을 욕하고 모독하는 부끄러운 행위인 것이다. 음식을 받아 감사하고 귀하게 여겨 아름답게 살아가는것이 좋은 생활의 첫 출발인 것이다.

(토론토한인 선교교회 담임)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㉖

팔리·모왓 원작, 원재훈 옮김

피로에 지쳐있는 개썰매에 필요한 만큼 생겨서 프란쯔는 다시 북쪽으로 올라갔다.

이미 눈이녹기 시작한200여마일의 여행은 매우 더딘 길이었다. 프란쯔는 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거의 일천마일이나 여행을했지만 보람도없이 시간은지나갔다. 그가다시 캠프에 도착했을때는 그가 잘 알고있었던 에푹, 알주트, 우크틸로힉, 엘라이투트나, 에피트나, 오까눅, 오뀐눅, 그리고 호모굴룩등의 가족은그를 기다리지 못하고죽어버린 뒤였다. 그때는 봄철이었기 때문에 이들죽은 시체들은 눈이 없어진 바위틈새에 묻혀있었다. 무덤의 혜택을 보지못한 다른 시체들은 이리와 오소리가 파먹었다. 그리고 그들의 넋은 얌전하게 묻힌 사람들이 편안히 잠들수있는운도 갖지 못하였다. 이들이 죽어갈때는 그들을 묻어줄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프란쯔는 이할미우트 족들을 위하여 할수있는 최선을 다했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자신에게도 큰 변화가 찾아왔다. 그가 느꼈던 백인에게서 받은대접 즉 가슴아픈 상처와 분노 같은것은 싹 가시고 말았다. 아니 완전히 가신것이 아니라 리틀힐에 살고있었던 이 사람들 대신에 이런 사고가 생기게한 백인에게 분노를 느꼈다.

이 사람들 에게는 그 봄도 반세기동안 겪어온 어떤봄과 다를게 없는 봄이었다.

이 극한 상황을 알리는 메세지는전달 되었으니 결과는 어찌됐던간에 할수있는일은 다한 셈이다.

이제 정부는 이 사람들을 더이상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 또한 이제 백인의 법률로 이 사람들이 다스려 질때 어떤 책임도 변명할수가 없게 되었다.

메세지는 송전 되었으며 회답은 너무늦게 왔지만적어도 회답이 왔던것이다.

드디어 정부는 이 큰 평원에도 사람이 살고있어서 이들을 보호해야 된다는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타이렐씨가 처음 방문한 후로 50년의 어둠에쌓인세월이 흘러서야정부는 그가 처음만나본 사람들을 정식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이들이 50년동안 무심하게잊혀졌던것은 이제 끝이왔고 이들의,길고긴 역사를 통하여 두번째로 이 땅에 사는 쭈그려 앉는 사람들 즉 이할미우트족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희틀힐스에사는 사람들이 재때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마지막 죽음의 몸부림에서 건져주지 못 했을망정 이것은 백인의 양심속에 빛나는 틀림없는 승리였음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일이었다.

V. 그땅의 활력소

한스와 아이들이 도착하던 다음날 나는 총소리에 놀라서 잠을 깼다.

이 총소리는 이탈리아의 전쟁터에서 들은 독일군진지와 우리 진지에서 오가는 총격처럼 나의 꿈 속에서 들려왔다. 내가 완전히 잠에서 깰때까지 총소리는 계속 들려왔고 유월의 맑은 아침속으로 옷을 주워입고 나가 보았다.

프란쯔와 아노틸릭 그리고 한스는 집 옆에있는 언덕위에 앉아서 강건너 쪽으로 계속 총질을 하고 있었다.

남쪽의 낭떨어지 강뚝밑으로 약 100여마리의 암사슴들이 놀라서 어쩔줄을모르고 우왕좌왕 하고있는모습이 보였다. 총알이 바위에 맞을때는 회뿌연 연기가 나며 또 총알이 살아있는 짐승을 뚫고 들어갈때는 퍽 하고 단조로운 소음이 들렸다.

제일 선두에있는 사슴들은 빠른 갈색의 강물에 허리까지 잠겨 있어서 뒤에 밀려오는 사슴들 때문에뒤돌아 설수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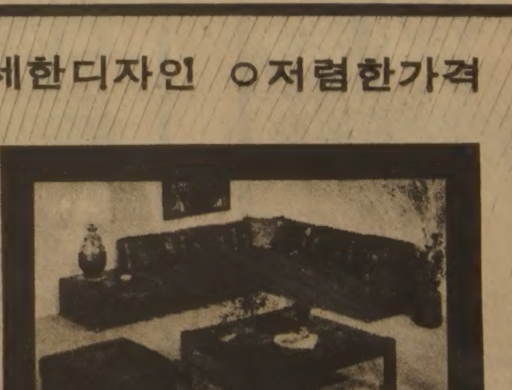
아직 강뚝위에있는 암사슴들은 발작적으로 처음엔 동쪽으로 그리고는 서쪽으로 뛰어 다녔다.

잠시 후에는 비스듬히열을지어 강뚝을따라 뛰기시작했다. 암사슴들은 강윗쪽으로 도망을 가면서 곧 새끼를 낳때가 가까워진큰 배를 거북하게 흔들면서뛰어갔다. 마지막 뒤떨어진 사슴떼가 꾸불어진 강나버로 지나가고 총질이 끝나자 세명의 사냥꾼들은 언덕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곧 집옆에 놓여있던 카누위에 쌓였던 눈을쓸어 내렸다. 나는 그들을 함께거들어주어 카누를 강위에띄웠다.

프란쯔와 나는 아직도잔뜩 붙어있는 강속으로 밀고 들어가서 힘센 물결이 카누를 만쪽으로 끌고 내려가지 않도록 온힘을 다해 반대편 강의 뚝으로 저어갔다. (계속)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533 2361

한국기원
영업시간 : 1시~11시
653A BLOOR ST. W.
☎ : 533-0168
부설 : 고려전자침

ecosys
생활가구·생활예술
MODERN FURNITURE
멋과 품위를 자랑하는 가구점
○최고의 품질 ○섬세한디자인 ○저렴한가격
특별세일
가죽제품공장과 쇼룸을 구비하여
특별대매출을 단행합니다.


생활의 풍요와 안락한 가정을창조하는
현대인의 가구점
2300 YONGE ST. TORONTO
Yonge Eglington Centre
486—0397 김만구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石油化學 垂直합병 유도

政府 美·日덤핑… 倒産危機 구출위해

産業體質 근본적 強化조치

現在의 多元생산 漸進止揚

정부는 美·日 석유화학제품의 덤핑공세에 밀려 도산위기에 직면해있는 國內 石油化學産業을 구하기위해 강력한 지원시책을 펴 나감과 아울러 産業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위해 현재의 다원적 생산체제를 점진적으로 지양하고 수직적 合倂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油公나프타分解이득 2百70億으로支援

수직적합병방향은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벤젠, 톨루엔, 키실렌, 사이크로핵산등 溜分과 폴리에틸렌합성고무, PVC, TPA, VCM등 중간계열제품, 그리고 중간계열제품과 합성섬유, 합성수지등 최종 소비재산업과의 수직적통합이 광범하게 검토되고있다.

정부는 특히 수직적합병은 과거 重工業계열의 統合조처때와같은 강제적통합을 지양하고 지원시책을통해 합병을 유도해나가기로했다.

商工部는 이와아울러 빈사상태의 석유화학산업을 구제하기위해 ①油公의나프타분해사업에서 얻어진 반사이득 2백70억원을석유화학계열산업지원에 돌리고 ②톤당3백44달러에 공급되고있는 주원료인나프타가격을국제가격인2백90달러선으로 인하하며 ③현행석유화학제품의허용기준인CIF(운임보험료포함수입가격)+3%를 CIF+5~8%까지 인상과 아울러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관세를 부과(관세환급불허)하여 선진국의 덤핑공세로부터 국내석유화학업계를 보호하기로했다.

이밖에도 장기적으로는 원료공급을다양화, 현행 나프타분해방식을 가스오일, LPG및LNG등의 분해방식으로 바꾸기로했는데 우리나라의 LNG 수입이 조기실현됨에따라 에틸렌제조공정의 LNG화는 빨리 이루어질것같다.

석유화학은 합성섬유, 합성수지, 도료, 합성고무등 모든 소비재산업에 원료를제공하는 기간소재산업인데 최근美·日등 선진국의 덤핑공세에 눌려 지난 80년중 석유화학계열17개사는 1천1백81억원의 적자를내어 자본금 1천8백억원중 절반이상을 잠식했고 금년들어서도 상반기중 1천여억원의 적자를내어 자본금을 완전잠식해 버린것으로 알려졌다.

中共, 金·外換保有高 첫發表

千2百萬온스·22億弗

"앞으로 定期的으로 公開"… 對外협력增進

【北京3日AP=聯】중공은 3일 지난49년의 공산정권수립이후 처음으로 중공의 金및 외환보유고를 발표, 작년말현재 金보유량은 1천2백80만온스이며 외환보유고는 22억6천2백만달러라고밝혔다.

중공관영 신화사통신은 이같은 金및 통화관련통계는 이제부터 정기적으로 발표될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또 중공인민은행 은행장 李葆華의 말을 인용, 작년의 통화량이 전년도인 79년에 비해 29.3%증가했다고 말하고 이같은 증가는 지난수년간 계속돼온 급속한 통화팽창현상의 한단면이라고 설명했다.

李葆華는 中共이 통화관련 통계를 공표함으로써 외국들의 중공경제및 통화사정에대한 이해도를 높일수있으며 외국과의 경제교류및 협력관계를발전시키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신화사통신은 중공인민은행이 올해부터 3개월에한번씩 통화관계통계를 발표할계획이며 다음에는 사정이 허락하는대로 매월1회씩 발표하게 될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의 工業化 胡耀邦이 찬양

"中共經濟 모델로"

신임 中共당주석 胡耀邦은 한국, 유고, 루마니아등 세나라의 공업화과정을 모델로 삼아 중공의 경제발전을 추진해나가겠다는 희망을 피력한것으로 2일 보도됐다.

極東방송이 중공에서보내온 간행물과 편지들을토대로 보도한바에의하면 胡는 지난12월 北京을방문한 그리스기자와의 회견에서 중공처럼 농업국가였던 한국이 짧은시일내에 공업화에 성공한 사실을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

胡耀邦의 이같은 발언이보도되자 당시북한은 이를민감하게 받아들이고 胡를비난한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발전을 가장 화급한 과제로 삼고있는 중공은 현재 마땅한발전모델을 외국에서 찾아내려는 연구를 사회과학원에서활발하게 진행하고있는데 그중 「조선경제연구소」가 가장 많은실적을 올리고 있는것으로전해졌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나토戰時地下司 83년完工

核爆彈등 被襲에도 安全

【카스토(벨기에) 3日路透=聯】유럽의 나토동맹군사령부가 전시에 이동, 보호받을 거대한 地下壕가 굴착되었다.

同계획책임자인 유럽동맹군최고사령부(SHAPE)의 한 영국군관계자는 이지하호안에 건물이 오는83년까지 완성되면 핵폭탄등 어떤무기에 피격당해도 끄떡없이 견딜것」이라고 증언했다。

이 지하전시사령부는 넓이약6천㎡에 깊이 20m이상의규모로 난공불락의 지휘소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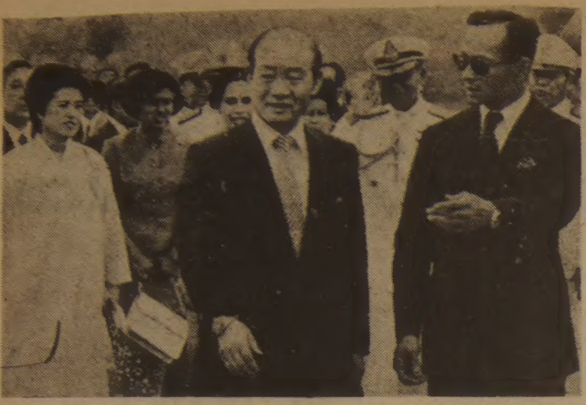
이 거대한 지하동굴은 이미 시멘트로 방벽공사를 끝냈는데 장차 들어설지휘소건물안에는 초정밀전자지휘체계, 자료처리컴퓨터와 통신망등 각종시설이 장치된다。

社會漫評

탐독 또 탐독…

"韓·泰는 協力의 同伴者"

全大統領 방콕到着 오늘 兩國首腦회담



◇泰國王영접받는 全大統領　全斗煥 대통령내외가3일 泰國수도 방콕의 돈·무앙 空軍기지에 도착, 푸미폰泰國국왕 (前面右端)의 영접과 안내를 받고있다。푸미폰國王 오른쪽뒷면에 프렘首相 (흰軍服) 의 모습이 보인다。 【방콕3日UPI聯=聯】

【방콕3日=尹國炳특파원】全斗煥 대통령 내외는 2泊3일간의 싱가포르공식방문을 마치고 3일낮12시50분(泰國시간상오10시50분·이하 한국시간) 아세안巡訪의 4번째 방문국인 泰國수도 방콕의 돈·무앙 空軍기지에 도착, 푸미폰 泰國국왕부처의 영접을 받았다。

全대통령은 4일 낮 방콕시내 정부청사에서 프렘 수상과 양국 首腦회담을 갖고 韓·泰양국간의 공동관심사와 東北亞및 東南亞의 지역정세, 두나라간의 경제·기술협력방안등에 걸쳐 포괄적인 협의를 가질예정이다。

全대통령은 3일 泰國도착직후 성명을 통해 『본인은 우리 한국과 각별한 인연을 가지고있는 貴國에대해 한국국민의 우정과 감사를 전한다고 밝히고 『이번 방문기간중 양국간의 각별한 우호협력관계의 증진방안은 물론 이 지역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安着시키는 문제등에 관해 깊이 협의할수 있기를 기대하고있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北傀가 6·25 南侵때 泰國이 유엔軍旗幟하에 참전했던 恩人의나라라고 상기시키고 『한국국민은 귀국을항상 우리의 가장 친숙하고 가까운 친구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泰國국민은우리와 마찬가지로 평화를사랑하는 국민이며 근래에는개발도상국가로서 경제건설과 국민복지향상을 위해 서로有益한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온 同伴者』라고 지적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돈·무앙공군기지에서 푸미폰 泰國국왕부처의 영접을받고 國王과함께 泰國의장대를 사열했으며 이어 하오1시35분 방콕市廳의 환영행사에참석후 모터케이드로 보로마비만·맨션(迎賓館)에 도착,旅裝을풀었다。

全斗煥 대통령은 이날하오 푸미폰 泰國국왕 부처와함께 방콕시청 광장에서 열린 환영행사에 참석, 방콕 시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全대통령내외는 티암방콕市長으로부터 「방콕市의 열쇠」를 증정받고 티암市長의 환영사에 대한 답사를 통해 『방콕시민이 보여준 따뜻한 환영과 우정을 오래도록 잊지못할것』이라고 말하고『특히 이 열쇠는 한국국민이 泰國국민과 번영의 새시대를 여는 징표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티암 방콕市長은 『全대통령은 방콕市가 따뜻한友誼로 가득차 있는것을 알게될것』이라고 말하고 그 이유는 『韓·泰양국민이 지난수십년동안 변함없는 同伴者의 유대를 지녀왔기때문』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내외는 이날 하오 5시 두싯궁으로 푸미폰國王부처를 예방, 훈장을 교환하고 수행원들을소개하는등 3泊4일에걸친 泰國방문의 첫공식일정에 들어갔으며 숙소인 迎賓館에서 프렘 泰國수상및 각료부처를 접견, 20분간 환담했다。

全大統領 아세안巡訪 오늘의日程
▲상오=勝利塔에獻花
▲하오=韓·泰首腦회담 (首相室)
▲〃=泰首相주최리셉션

"兩國會談 큰成果"

싱가포르 出國聲明

【싱가포르3日=尹國炳특파원】全斗煥 대통령은 3일 상오 싱가포르방문을 마치고 泰國으로 떠나기앞서 창이공항에서 다나바란外相부처등 싱가포르側고위인사들과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全대통령은 출발성명을 통해『귀국방문을통해 東아시아지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고 번영을 추구하고자하는 友邦싱가포르의 결의가매우 공고한것임을 확인하고본인은 크게 고무되었다』고말하고『우리와 친선이 고조된 분위기속에서 본인과 싱가포르지도자간에 가졌던 회담이 한결 유익한 성과를 거두게 된것을 본인은 또한매우만족스럽게생각한다』고밝혔다。

"官民協力委를 구성"

韓·싱가포르 한국民間업체등 進出

【싱가포르2日=尹國炳특파원】全斗煥 대통령을 수행중인 李圭浩건설부장관은 2일하오 태·창·완 싱가포르국토개발상과 회담을갖고 양국간의건설및도시계획분야의 협력증진방안을 협의했다。

이자리에서 태 국토개발상은 싱가포르가 앞으로 대대적으로 추진할 港灣매립과간척사업, 도시재개발사업에 한국민간업체들의 진출확대를 희망했으며 李장관은 한국정부의 협력을 다짐했다。

한국측은 특히 주택, 도시문제의 협력과관련 官民협력위원회를 구성, 建設지식과 제도등을 상호교환할 것을제의했고 이에 싱가포르측은원칙적인 동의를표하면서 앞으로 외교경로를통해 한국측이 이를 공식으로 제의하면 조속히 이기구가 구성될수 있도록협력하겠다고밝혔다。

漢江 위험水位 육박 6m81cm

◇중부·강원지방의 집중호우로 한강하류의수위가 높아지고있다。 3일하오5시 현재 한강인도교의 수위는 6m81㎝。 경계수위 (8m50㎝) 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지만 八堂댐에서 수문10개를열어 초당 1만2천2백톤의 물이 내려오는 탓이다。

地平線

장님이 제닭 잡아먹는 거나 다를없는것이 바로 「환경오염」이라고 유엔의 환경계획(UNEP)은 경고하고있다。지난달 5일에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예를 들어 선진공업국들이 환경보호에 손을 쓰지않는다면 한해 국민총생산(GNP)의 3~5%의 피해를 입을것이라는 것이다。의료비가 늘고, 생산이 줄어들고, 농업이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그러나 공업국들의 환경보호비용은 겨우 GNP의 1~2%에 지나지않는다。

▼환경오염의 피해가 얼마나 되는 예는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대표적인 경우를 볼수있다。작년에 로테르담 동쪽의 레커커크라는 주택단지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발단은 동네에서 고약한 냄새가 난다는 불평에서 시작됐다。원래 이주택단지는 낮은 지대를 쓰레기로 메우고 세운것이었다。조사해보니 땅속의 쓰레기에 산업폐기물이 있다는게 밝혀졌다。페인트제조업자가 벤진같은 독성이있는 쓰레기를 몰래 버린것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동네의 집을 모조리 사주고, 땅을 파헤쳐 7만5천톤의 오염된 흙을 내다 버렸다。여기에 버린돈이 7천5백만달러(5백16억원)나 됐다。이 엄청난돈은 페인트 제조업자의 양심없는 짓이 없었더라면 안써도 되는 「생돈」이었다。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아직 이런 「생돈」을 쓰는 형편도 못되지만, 그렇다고 독이 있는 폐기물을 마구 버리는 업자들을 조직적으로 단속하지도 못하는 형편인것 같다。

▼지난2월 6일 5차5개년계획을 위한 환경부문 정책협의회에서는 2조3천여억원의 투자를 주장하는 환경청쪽과 돈을 짜내야되는 경제기획원쪽이 맞섰던 것으로 알려져있다。경제기획원쪽에서는 환경오염과 투자효과에 관한 구체적인 숫자도 없이 그렇게 엄청난 돈을 짜낼수 있느냐는 입장이었다 한다。그러나 환경청은 「구체적인숫자」를 결국 내놓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다。

▼연세대의 공해문제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에 의하면 서울의 아황산가스는 환경보전법이 규정한 기준치의 3.5배이고, 한국대의 생태학연구팀에 의하면 서울지역 한강물은 이제 공업용수로도 못쓸 지경이라고한다。그야말로 장님이 제닭을 마구 잡아먹은 꼴이다。서울시가 적발해낸 양체 공해업체들도 그런 「장님」의 하나다。더구나 그중에는 버젓한 대기업도 적지않다。여기에서 데이비드·워커라는 한 공해전문가의 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공해방지투자를 꺼리는 업자들의 말은 노예해방이 원칙으로는 좋지만 경제적으로 감당할수 없다는 왕년의 노예해방반대론과 비슷하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결혼·약혼
예물은
로렉스와
다이아몬드
전당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406
은 : 온스당
US 8.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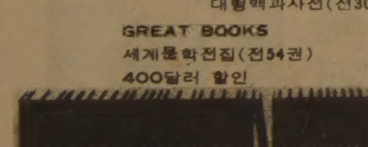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424-2599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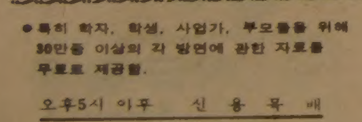
김종조
535-0028
535-7200

교포
사회의
등불
한국일보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효과!
(416)
533·2361

BRITANN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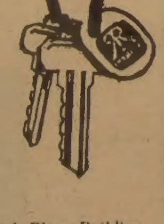
NOW 30 VOLUMES!
BRITANICA 3
대형백과사전(전30권)
GREAT BOOKS
세계문학전집(전54권)
400달러 할인



●특히 학자, 학생, 사업가, 부모들을 위해 30만종 이상의 각 방면에 관한 자료를 무료로 제공함.
오후5시 이후　신용목배
●교인, 학교 각 단체회원에게 특별할인
●타 백과사전 소지자께 특별할인
●소년용, 아동용 백과사전도 있음
문의처 : 536-9082(B). 245-7522(R)

PIONEER
CAR+HOME
STEREO
각종 STEREO SYTEM.
Pioneer, Sharp, Hitachi,
$499~$3,000 이상의 고급품,
Receiver, Tapedeck, Turntable,
Audio Stand
각종의 스피커를 구비하고 있음.
카 스테레오, 각종 고급
카 스피커 취급함.
그외 고급 Cassette tape
야외용 Portable, Stereo도 구비하고 있읍니다.
HI-FI HOUSE
영업시간 : 10시-9시　☎ : 633-2332
토 요 일 : 10시-6시
4544 DUFFERIN ST. UNIT 6
(휜치×더프린)

각종 부동산의
매매및 상담이
필요하십니까?



● Commercial and Industrial Plaza Building.
● Apartment Building
● Hotel and Motel
● New Store Lease
오랜 경험과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로 수익성 높은
투자를 안내해 드립니다
김시성
(B)497-0600
(R)298-8558
D.F. McALLISTER
250 Consumers Road

아직도 작년값으로 팝니다
밍크
털오바를
원하십니까?
FURS
Paul Magder
◆밍크털 오바◆
새 진열장을 갖추고 고객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털코트, 자켓, 모자, 스톨, 털목도리등.
BIG SAVINGS NOW!
•영업시간
: MON. TUES. WED. SAT.　9:30-6:00
THURS. FRI.　9:30-9:00
•신품 : $99이상　•중고품 : $10이상
MRS. PARK
202 SPADINA AVE.　☎ : 363-6077

蘇,지중해艦隊 대폭增強

艦艇數 53척으로… 4年來 최고

◇브란트 전송하는 브레즈네프 브레즈네프 소련공산당 서기장이 소련방문을 마치고 출국하는「빌리·브란트」서독社民黨首와함께 브노코보공항으로 들어오고있다。【모스크바 2日UPI=聯合】

시리아와 合訓도 준비

美情報소식통 對이스라엘 警告노리는듯

【워싱턴2日AP·UPI=聯合】소련은 최근 地中海주둔 해군함대의 전력을 4년만에 최고수준으로 증강했으며 정치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갖게될 蘇·시리아합동군사기동훈련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고 美정보소식통들이 2일 밝혔다。

이 소식통들은 소련地中海함대소속 함정수가 통상35~45척으로 구성돼있었으나 최근 갑자기 지난 77년이래 최고수준인 53척으로 증강됐다고 밝히고 이가운데는 6백명의 해병대를 상륙시킬수있는 수륙양용함 12척이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들은 소련과 시리아가 시리아연안에서의 합동군사기동훈련을 계획해온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소련은 분명히 이기동훈련을위해 TU-16「배저」폭격기 4대, IL-38정찰기 4대및 對잠수함항공기들을 시리아에 파견했다고 지적했다。

이 소식통들은 소·시리아군사기동훈련이 시리아연안에대한 상륙훈련으로 실시될경우 레바논 남부배치 시리아 샘6미사일에대한 어떠한 직접적인 군사행동을 취하지 못하도록하는 對이스라엘 경고로 간주될수 있다고 말했다。

"人質釋放협정 正當하다"

美연방大法院판결 凍結資産 20억弗引渡해야

【워싱턴2日UPI·聯合=聯合】美연방대법원은 2일 카터前대통령이 이란에 억류됐던 美인질 52명을 석방시키기위해 이란과 체결했던 인질석방협정의 정당성을 최종 인정함으로써 미국은 오는 7월19일까지 미국내에 동결됐던 이란자산 20억달러를 이란에 인도하지않을수없게 됐다。

이로써 카터前대통령의 인질협정에 異議를 제기해온 美회사들은 미국내에서 이에관련된 재산권 주장을 더이상 못하게 됐으며 따라서 관련 미국회사들은 이경우를 위해 설치된 중재재판소에 제소하는길만이 남았다。

美연방대법원은 카터 대통령이 인질협정을 체결할것은 1977년의 국제비상경제권에 따른 정당한 대통령권한의행사였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미정부는 지난 79년11월14일 동결했던 미국내 이란자산 가운데 나머지 약20억달러 이상을 오는19일 이전에 이란에 인도하게된다。

社會黨 메르마즈氏 佛새議會 議長당선

【파리2日AP=聯合】프랑스국회는 23년간의 제5공화국사상 최초로 社會黨이 지배하는가운데 2일 개원되어 社會黨의 루이·메르마즈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관례에 따라 최고령자인 드골파의 마르셀·다소(89)의원의 사회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사회당의 메르마즈의원은 시라크파의 샹봉·드·로카·세라의원을 2백95대 1백49표로 눌러 의장에 당선됐다。

日、美와 軍事技術 협조

武器輸出금지 3原則불구

【東京2日=宋孝彬특파원】일본정부는 미국이 전자·통신·레이저 광선부문의 군사기술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한데대해 응할방침이라고 2일 미야자와(宮澤) 관방장관이 밝혔다。

미야자와 관방장관은 이날하오『일본은 무기수출금지 3원칙에 따라 일반적으로 무기와 군사기술을 제공할수없으나 안보조약을 체결하고있는 미국은 예외』라고 말하고『美國안보조약의 효율적인 목적달성을위해 통신과 레이저부문의 기술제공요구에 응할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정부는 와인버거-오무라(大村) 국방장관회의 때 미국이 요청한 방위력증강에 대해서는 반대할 방침이나 군사기술 협조에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응할방침을세웠다。

메아리

「배인 장마에도 하루만 더 비가 왔으면 한다」이 말대로 인간은 일기에 대해서 자기중심적이다。비가 와도 걱정、안와도 걱정하던 것이 천수답시대 우리 농민들의 하늘을 향한 한탄이었다。

생활경험의 정수라는 속담엔 교훈적인 요소가 많다。기후에 관련된 우리 속담은 농업과 밀접한 경험을 보여준다。「기후속담」몇개를 추려본다。「오뉴월 더위에는 암소뿔이 물러 빠진다」「처서에 비가 오면 항아리의 쌀이 준다」「報恩아가씨 추석비에 운다」

가뭄끝의 장마로 수재를 당하니 날씨에 관해 여러모로 생각하게 된다。지난여름 冷害도 연상되어 올 농사에 신경이 쓰여진다。

유럽의 날씨가 요즘 심상찮게 돌아가는 모양이다。같은 여름인데도 북쪽은 춥고 남은 살인적인 폭서에 시달리고있다。극단적인 기온의「熱冷현상」이라고나 할지…。

영국과 프랑스에선 털옷을 꺼내 입고 자동차엔진 凍結주의령까지 내렸다。그런가 하면 스페인과 그리스쪽은 일사병으로 사람이 쓰러지고 소떼가 죽어 간다고 한다。10년마다 일어나는 현상이며 인달 중순께는 정상을 회복한다고 하지만 이상기온의 신출로 유럽사람들은 어지간히 고생을 하고 있다。

우리 관상대의 분석으론 금년 우리나라엔 작년같은 기상이변의 冷夏현상은 없으리라는 전망이다。이와 반대로 일본 기상청은 올해도 冷夏예보를 내리고 있어 농촌과 여름철 관련업계의 걱정이 태산같다。

氣象異變

「뜨거운 여름」을 예상하는 중앙관상대의 의견은 과거 71년간의 우리나라 3·4월과 6·7월 기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통계에 근거를 두고있다。

일본기상청은 冷夏의 원인을 다르게 밝힌다。북위 30~60도 부근에서 부는 편서풍이 시베리아의 찬바람을 몰고와 남북으로 흐르기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 기상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의 기상이 전혀 다르므로 일본과 함께 冷夏걱정을 나눌 필요가 없다고 한다。어느쪽 예보가 맞아 떨어질지 두고볼 일이지만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수는 없다。

「가뭄은 있어도 旱害는 없다」는 의지의 구호처럼 우선 이번 장마를 이겨내고 비록 冷夏가 오더라도 冷害는 피할수 있는 풍요로운 가을맞이가 기다려 진다。

스즈끼政府 신뢰도下落

6월중7·8%줄어

【東京3日UPI=聯合】일본의 스즈끼·젠꼬(鈴木善幸)수상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6월들어 지난 5월에 비해 7·8%가 하락한 31·7%로 나타났다고 日本의 時事통신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밝혀졌다。

지난 6월10~13일 사이에 실시된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또한 현정부에 대한 불신도도 5월의 25·1%에서 35·1%로 크게 높아졌으며『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의 수는 33·3%에서 35·4%로 증가했다。

對中共 전략물자 西方, 수출自由化

【東京3日=聯合】미국·일본과 유럽諸國등이 중공에대한 전략물자수출규제를 대폭 완화、무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완화조치를 사실상 자유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일본의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3일 보도했다。

따라서 전략물자의 對中共수출은 사실상 COCOM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汪東興 ◇陳錫聯 ◇陳永貴

4人幇관련 逐出됐던 汪東興등 公席나타나

中共黨60周기념식

【홍콩2日=聯合】4人幇과의 친분관계및 국과 노선관련 사실때문에 中共黨중앙위 정치국과 기타요직에서 축출됐던 汪東興·吳德·陳永貴·陳錫聯등이 지난1일 北京에서 거행된 中共黨創黨60주년 행사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음이 2일 판명됐다。

홍콩의 중공계 석간 新晩報는 2일 北京특파원발신기사에서 前黨부주석 汪東興、前北京시장 吳德、前北京軍區제1정치위원 紀登奎、前부수상 陳永貴、前北京軍區司令員 陳錫聯등이 北京의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확인했다。

이들 前지도층중 아직도 당중앙군사위원회 상임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陳錫聯은 제복차림으로 단상구석 두번째줄의 오른쪽에 앉았고 山西省 농부출신인 陳永貴는 민복차림으로 江·吳·紀등과 함께 壇下에 앉아있었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이스라엘에 黑白紛糾 심각

인사이드

總選서 歐美系·阿·中東系대립 노골화

黑 가난·犯罪많고 白 先住잇점 政經장악

生存을위해서 온국민이 일치단결하는 인구 3백20만의 小國 이스라엘。

그러나 안으로는 貧富와출신지를 토대로한 黑白문제가 자못 심각하다는 사실이 이번 총선결과 드러났다。

같은 핏줄을이은 유태인이면서도 2천년이란 오랜 방랑생활로인해 출신지역에 따라 약간씩 달라진 피부색을 토대로 갈라진 사회계층상의 분열상이 두드러져 있다。

주로 유럽및 북미지역에살다 시오니즘운동에 가담,이스라엘국가를 세운 애쉬커나지는 백인모습이지만 중동및 북아프리카등지에서 독립후 이주해온 세파딤은 까무잡잡한 얼굴이다。

이들 두갈래 黑·白유태인간의 불화는 정치·경제등모든 분야에서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화이트·인텔리겐차」로 자처하는 歐·美系는노동당을 전통적으로 민다。이들은 47년 이스라엘독립전쟁을 직접 수행、나라를 세운 장본인들이다。정치·경제적으로 상위계급층을 형성、주도권을 쥐고 있다。

반면에 阿·中東系는 50년대중반 뒤늦게 모로코(30만) 예멘(4만9천)튀니지(3만8천) 리비아(3만8천) 이집트(3만1천)등 북아프리카및 중동에서 몰려 온 유태인들이다。

阿·中東系는 1492년 스페인에서 강제추방된 유태인에서 줄기가 이어지는데 이스라엘정착당시에는 거의가 문맹상태였다。따라서 이들은 저소득층으로 빈민가에살고 범죄자들도 많다。대학나온 사람들도 극소수에 불과하다。원래 부족중심 생활에 젖어온 이들은 우선 현대국가 사회에 적응할수있는 자질이 모자라 사회의 밑바닥에서 헤맸다。

거기에는 歐·美系와는달리지도자없이 뿔뿔이 이스라엘에 돌아온 탓도 있다。

전체인구중 歐·美系가 41·5% 阿·中東系가 45·2%로 후자가 더많다。나머지는 아랍인·드루즈인으로 분포되어 있다。

각 정당들은 선거전에서 黑白을 의식、각기 歐·美系와 阿·中東系를 골고루 후보로 내세운다。

건국후 항상 연립내각구성시 제3정당으로 정권의 향방을 가늠하는 기능을해온 국가종교당(NRP)은 阿·中東系가 주류를 이룬다。

이번 총선에서 폴란드출신인 페레스는 노동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歐·美系의 상위계층을 파고들어 베긴을 공략했다。

반면 베긴은 같은 폴란드출신이면서도 歐·美系 보다는 阿·中東系쪽에 손을 내밀었다。

베긴은 阿·中東系유권자들이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주도권을 쥐고있는 歐·美系에 대해 증오하는 심리를 이용한 것이다。모로코系는 노동당집회를 방해하느라고 폭력을 휘둘러 베긴의 人氣下落을 부채질하기도 했다。

反베긴측에서는 이같은 베긴의 전략을 꼬집어 그를「모로코인의 지도자」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같이 黑·白간의 불화는 生存이란 공동의식으로 굳게 뭉쳤던 이스라엘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모국이라고 살러 들어왔다가 다시 제3국으로 떠나는 유태인들이 자꾸늘어나는건 이를증명하고있다。【崔海雲기자】

베긴聯立협상 難關에

國家宗教黨 총선 결과때까지 協商중지

【예루살렘3日UPI=聯合】의회의석 6석으로 메나헴·베긴수상이 이끄는 리쿠드黨의 차기연립정부구성가능성에 최대의 관건을 쥐고있는 이스라엘국가종교黨(NRP)은 오는7일 최종총선결과가 밝혀질때까지 리쿠드黨과의 모든협상을 중지할것이라고 NRP의 대변인이 2일발표했다。

만약 현집권 리쿠드黨과 NRP가 총의석의 과반수인 61석을 확보하지못할경우 NRP는 再選을 요구할것이며 최대野黨인 노동당은 2차선거에서는 이번 선거보다 더많은 의석을 확보、집권당이 될수있다는 계산하에 이를받아들일것으로 보인다。

한편 베긴수상과 시몬·페레스노동당당수는 2일각각 요세프·부르그 NRP당수와 만나 聯政구성에 대해 논의했다。

鄧小平의 5年攻略 〈4〉

─「1中全」에서「6中全」까지

「左傾的 과오」극복여부가 關鍵

新體制밀고나갈 法的보완 필요

鄧小平派 성패는「實踐」…10억人에 새 비전 제시해야

6中全會가 진통끝에 채택한「건국이래 약간의 당의역사문제에 관한 결의」가 언급하고있는 주요내용은「反左」노선으로 집약된다。좌경의 과오를지적하여 毛澤東과 문화혁명, 華國鋒을 비판한다。

역사결의는 먼저「毛澤東동지는 위대한 마르크스주의자요 위대한 프롤레타리아혁명가,전략가,이론가였다」고전제하고『毛澤東사상은 黨의 귀중한 정신적재산이며 앞으로 장기간에 걸친 우리의행동지침이다』라고 전제하고있다。역사결의는 그러나 毛가 만년에 文革을 일으키고 彭德懷에 대한 비판을 가하는등 黨內 계급투쟁을 확대, 反右派투쟁을 벌였다고 과오를지적하고있다。

反右派투쟁은 정치면에서 黨중앙과 지방조직을 망라, 黨內민주를 파괴했으며 경제면에서도 左傾의영향이 심대하여 오랫동안 영향을 미쳤다고 비난한다。毛澤東은 또 黨생활의 민주적장치를 점차무너뜨리고 개인숭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했으며 이것이곧 문화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고비판하고있다。

역사결의는『文革이 黨과 국가와 全인민을 내란으로 끌고간 대재앙이었다고』규정하고『문혁이 장기간 대규모로 左의 잘못을저지르게된 책임은 모두 毛澤東동지에게 있다』고했다。

역사결의는 전체적으로 볼때 毛가 중국혁명에 끼친 공적은 과오보다 훨씬 높아 공적이 제1이고 과오는 두번째라면서『毛澤東동지는 중국인민이 존경하고 경애하는위대한지도자요 스승』이라고덧붙이는것을 잊지 않았다。

좌경적 과오에 대한 華國鋒비판도 뒤따랐다。

華는 76년 黨주석직에 오른후 과거의 과오를 시정하라는 黨지도층의 말을 듣지않고『毛주석이 하라고 한것만 옳고 하지말라고 한것은 절대로 옳지않다』는 이른바 凡是論만을 고집, 毛에 대한 개인숭배등 좌경적 과오를저질렀다고 역사결의는 끄집었다。

實踐派가 주장하는 좌경적 과오는 과연 무엇인가。좌경적 과오는「특정인의 개인숭배、그로인한 특정이념의 고집、이에따른 계급투쟁의 확대」라고 말할수있다。

역사결의는 좌경적 과오가 비롯된것은 55년부터라고 지적하고있다。

55년은 毛澤東의 지시에 따라「과도기總路線」이 표방되고 사회주의改造방침이 헌법에 명시되어 농업·공업·상업분야의 사회주의적 개조작업이 급속히 진전된 시기다。

이어 毛澤東은 과학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百家爭鳴 百花齊放」운동을 벌였으나 資産계급적 움직임이 보이자 다시 右派에 대한 정풍운동을 전개한다。

58년 사회주의 총노선이 8期2中全會에서 채택된후 대약진운동,인민공사설립을 덧붙여 소위 3面紅旗정책이 시작됐다。

『毛澤東의 反右派 투쟁의 확대와 객관적 경제법칙을무시한 경제정책실시의 과오가 문화혁명의도화선이되었다』고 지적한 6中全會의역사결의는 구체제를 부정하는 신체제의 선언이요 신체제의방향을 알리는 신호다。문제는 새로운 實踐派정권이「과거의 좌경적 과오」를 어느만큼극복할수 있느냐에있을것이다。

역사결의가 지적했듯이「文革기간동안 저질러졌던 좌경적 과오는 너무 심각한 것이어서」단시일내에 시정하기에는 버찬과제가아닐수없다。

鄧·胡·趙신체제는 6中全會를 통해서 毛澤東의 家父長적인 개인지도체제를 깨뜨리고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는데 성공했지만 집단지도체제를 이끌고 나가기 위한 발판은 손댈곳이 많다。

당직자의 종신제폐지와 임기제도입,고문위원회설치,당기구개편을위해 당규약을개정하는것도 앞으로 남은과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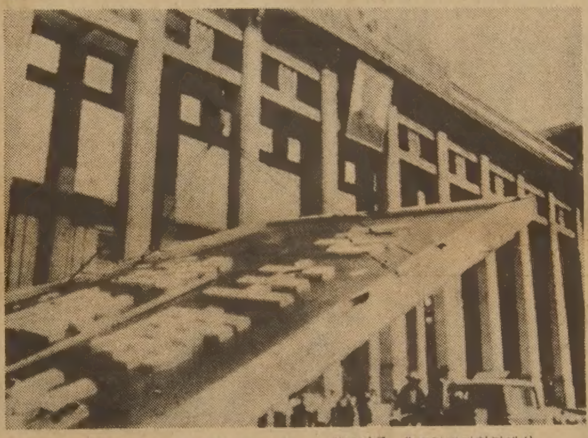
6中全會 결의를통해 鄧小平은 黨군사위주석직을 맡게 됐지만 이것은『중국의 무장력은 공산당주석이 통솔한다』는 중공헌법19조의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다。

鄧이계속군사위주석을유지하려면 헌법개정도필요하다。

헌법이나 당규약개정문제는 다음에 열릴 12全大會에서 거론되게 되겠지만「左」파의 반대가 어느정도거셀지。

신임 黨주석 胡耀邦은 1일 中共黨창건60주년기념식 기조연설을 통해『黨의 단결을 바라는 善人들과 분열을 원하는 惡人들이 있다。현실은 이들에게 명확한 답변을 주었다』고 말했다。

胡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2시간가량의 연설을 마쳤지만 實踐派가 새로운비전을 10억 인민들에게 제시하는 일은 지금부터다。실천파의 성패는 앞으로의「실천」에 달렸다。【朴永韓기자】



◇철거되는 毛찬양구호 작년여름 北京인민대회당에서 철거되는 毛澤東찬양구호。6中全會서채택된「역사결의」는 毛澤東도 과거의 左傾的과오에 대한 책임은 져야한다고 규정했다。

海外토픽

"음식물로 病을 고쳐줍니다"

中共에 첫「治療식당」등장

中共四川省에 음식물섭취로 질환을 치유하는 이른바『치료식당』이 처음으로 개설돼 당뇨병환자나 심장질환자등 병약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관영新華社통신이 보도。

四川省成都시에서 문을연「룽런탕」이라는 이 치료식당은 각 증상에 따라 치료에 효험이 있는 약 1백여가지의 메뉴를 마련하고 있는데 맛까지도 일품이라는 소문。

특히 이 식당의 메뉴중 당뇨병에는 만두국、신경쇠약이나 심장및 비장、위장쇠약에는 인삼죽、그리고 신열이 나는데는 국화를곁들인 돼지고기편육、부종에는 콩을 넣은 잉어요리가 좋다고 이통신은 전했다。【北京=UPI】

Century 21.

금주의 새리스팅

1. 건물+가게
— 주매상 $4100 가격 $129,500
— 주매상 $3700 가격 $125,000
— 주매상 $4000 가격 $139,000
— 주매상 $4000 가격 $189,000

2. 집
— 방갈로 독채 3 베드룸 물개지 양호 134,900
— 아파트 10채 달린집 229,000

3. 가 게
— 주매상 $3700 시간 오전9시~오후8시 주일 닫고 그로서리 없음.
쇼핑센터에 있는 기프트 샵등 다수 있음

4. 동양계 식당 일요일 닫으며, 이윤이 좋고 사정에 의해 급매코자 함.
적은 Down payment $15,000~20,000

황용현

경영상담
투자상담
모기지알선

로차부동산 318 BATHURST ST
(B)361-0880 (R)286-1548

ZENITH VIDEO SENTINEL SYSTEM™

문밖의 손님을 감시 또는 대화할때 / 어린애를 감시하고 돌볼 때 / 실외에서 노는 어린이를 감시할때

특별염가

취급 품목
TV, RADIO
STEREO
ZENITH, SANSUI
AKAI, TOSHIBA

삼성사 668 BLOOR ST. W. ☎ : 533-4125

피부병 서울서도 기승

옴·手足口病·접촉성피부염 까지

병원·약국에 환자 평소 4倍

3일 현재 서울시내종합병원과 일반병원의 피부과에는 예년에비해 3~4배나되는 피부병환자가 몰려 치료를받고있으며 일반시중의 약국에도 피부병치료제를 찾는 환자가 늘고있다. 이 피부병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있는것과 비슷한데 크게 3가지종류. 옴벌레의 인체기생에의한옴, 바이러스균에의한 수족구병(手足口病), 그리고 독나방이나 송충이, 꽃가루등에의한접촉성피부염등이다. 특히 옴은 20~25년을주기로 번성하는데 올해가 바로 그 빈발주기에 해당, 환자가 늘고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서울 順天鄕병원 피부과에는 요즘 매일 10여명의 피부병환자가 찾아오고있으며 수족구병환자도 매일 10~15명씩 찾아오고있다. 피부과장金容煥박사에 의하면 이같은 환자수는 예년에비해 거의 3~4배로 늘어난 것이다. 적십자병원에도 매일5~6명의 옴환자와 15~20명의 수족구병환자가 찾아오고있으며 이밖에 세브란스병원, 한강성심병원, 강남 성심병원, 강남 시립병원의 피부과에도 하루평균 50여명의 수족구병환자와 5~6명의 옴환자가 찾아오고있다. 피부과전문의원이나 약국에도 같은상황으로 서울道峰區雙門洞번동길 피부과의원의경우 전에는 없었던 옴환자가 6월에만 20여명이나 찾아왔고 수족구병환자는 5~6월사이 1백여명에 달했다. 서울中區南大門路3街 南市약국 약사權基泌씨(33)는 『6월초순부터 매일7~8명의 옴환자와10여명의 수족구병환자가 찾아온다』고 말했다.

이같은 추세에 대해 피부병전문의들은 요즘 기후조건이 습기가 많고 따뜻해 세균번식에 적합한데다 인구의 대량이동등으로 세균의 이동도 고속화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집중적인 방역도중요하지만 시민모두가 목욕을 자주 하는등 기초적인 위생을 잘 지켜 예방해야 할것이라고 당부했다. 【方政俊기자】

피부병과 치료법

▲옴=0.3~0.4㎜크기의 진드기종류인 옴벌레가 인체에 기생해 생기는 피부병. 옴벌레는 인체의 겨드랑이, 앞가슴, 사타구니등 비교적 노출되지 않는 피부에 기생하는데 가려움증이 생기는것은 옴벌레가 피하조직의 각질층에 굴을 파고들어가 교미·산란하는과정에서 생기는 분비물때문이다. 이분비물로 가려움증과함께 땀띠같은 발진이나 수포가 생긴다. 산란이 밤에 이뤄져 특히 가려움증이 밤에 심한데 치료도 밤에 집중적으로 해야한다.

옴에 걸렸을경우 20~30%의 벤질벤조에이트용액이나 GBH(감마벤젠헥사크로라이드) 연고를 수면전에 바르고 24시간지난뒤 다시 바르는 방법으로 3~5일간 치료하면 낫는다. 그러나부신피질호르몬제연고를 바르는등 치료방법이 부정확하면 악성피부염으로 악화된다. 옴벌레는 사람과의 접촉에 의해 감염되는데 여관이나 집단숙소, 목욕탕옷장, 이발소수건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물건을 통해서나 극장이나 교실, 버스안등 사람이 밀집해있는곳에서 쉽게 옮겨진다.

옴벌레는45도 이상이면 죽기 때문에 옴환자의 옷을 다리미질하거나 삶는것도 훌륭한 한방법이다.

▲手足口病=콕사키바이러스·A·16이라는 세균에의해 감염되는 피부병으로 주로 손바닥, 발바닥, 입안, 파가장자리에 물집과 홍반의 발진이 생기고 미열과 가려움증세를 동반한다. 57년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이 피부병은 우리나라에선 79년 9월에 처음으로 학계에보고된 비교적 신종피부병으로 10세이하의어린이들이잘걸린다. 이 세균은접촉을통해서나호흡기를통해 전염되는데 악화될경우 급성 기관지염, 폐렴, 신장염, 폐혈증으로까지 발전하는 무서운 병이다. 항균제나 항생제를 복용하는등 대증요법외에 뚜렷한 치료방법은 없다. 피로를 풀고 안정을 유지하며 환부를 건조시키면 대개 1주일내에 낫는다.

▲접촉성피부염=꽃가루나 독나방, 송충이등에 의한 두드러기등으로 주로 농촌지역에서 발생하고있지만 서울에서도 中浪川, 道林川, 弘濟川, 安養川일대가 모기, 꿀벌레등의 서식지역으로 이일대주민들은 곤충류접촉에의한 피부병에 주의해야한다.

密集도시 전염속도 빠른데… 「注意報」뿐 속수무책

지방에서 극성을 떨던 옴과 세균성피부병이 초과밀도시인 서울에까지 퍼져와 후텁지근한 장마철 날씨속에서 무서운 기세로 번지고있다. 옴에 땀과 습기가차는 장마철에 이같은 피부병까지 겹쳐 그렇지않아도 높은불쾌지수가 더 오른다. 특히 옴의경우 올해가 빈발주기에 해당하는데다 이환속도가 빠르고 뚜렷한 방지책마저없어 답답한 마음이 더할 뿐이다. 이같은 피부병은 지난4월중순께부터 부산을비롯 馬山, 蔚山, 晋州등 남부지방에서 극성을 부렸는데 5월께부터 북상하기 시작해 충남북과 강원을 거쳐 6월중순께는 서울을 중심으로한 중부지방까지 번져온것. 보사부는 지난달 4일 뒤늦게나마 전국에 「피부병주의보」를 내리고 대비에 나섰지만 대도시에까지 잠입한 이 「가려움병」은 계속 위세를 떨쳐가고있다.

狹軌기동차·버스 충돌

水仁線古棧里 승객18명 중경상·1량顚覆

건널목에서

3일 상오6시40분께 경기始興郡秀岩面古棧里반월공단입구 철도건널목에서 반월공단을 출발, 安養으로가던 경원여객소속경기5자2911호 시내버스(운전사 朴判同·41)가 仁川을 떠나 水原으로 가던 水原열차사무소소속 제792호 기동차(기관사 김남도·40)를 들이받아 열차승객 元福順씨(67·여·仁川市南區東春洞84의1 796)등 버스, 열차 승객 1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사고로 기동차4량중 맨 앞 제1동차가 전복되고 3량이 탈선됐으며 버스는 승강구부분이 부서졌다.

이날사고는 시내버스가 건널목에서 일단정지를 무시하고 계속 시속 60㎞로 달리다 전동차의 운전실옆을 들이받아 일어났다. 사고가 난곳은 차단기가없고 간수1명이지키는 4종건널목인데 건널목간수 安相遠씨(49)에 의하면 적색수기를 흔들었으나 시내버스가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이사고로 水仁선철로가 4시간동안 끊겼다가복귀됐다. 부상자들은 安養 동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다.

4살어린이 壓死

▲2일 하오3시께 전북鎭安郡白雲面白岩里708 金三童씨(33)의 2칸짜리 초가지붕이 폭우로 내려앉아 안방에서 잠자던 金씨의 장남 善一군(4)이 숨졌다. 사고는 金군이 혼자 낮잠을 자던 낡은 초가집이 비에 젖은 지붕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면서 일어났다. 【鎭安】

◇4시간 不通 크레인동원 충돌사고현장. 전복된 동차 1량을 복구반원들이 크레인을 동원, 일으켜 세우고있다.

暴雨被害 전국서10명死亡·실종

건물·선박·耕地 7億손실

연3일째 쏟아진 폭우로 전국에서 10명이 사망·실종되고 건물파피 농경지침수 도로 하천 제방파피등 수많은재산피해를 냈다.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이번 비로 3일상오6시현재 건물파피 2백7동, 선박파피 11척, 농경지침수 3천2백정보, 도로13개소, 하천 제방21개소, 수리시설 51개소등이 유실돼 6억5천7백49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고 밝혔다. 특히 집중폭우가 쏟아진 경기지방의 피해가 가장심해 재산피해만 3억8천여만원에 이른것으로 집계됐다.

두高校生 溺死 구하려던 靑年도

▲2일 하오5시께 서울江西區木洞164 安養川에서 간이교량(속칭 희망교)을 건너던 李範煥군(17·국제실업고 야간부2년)과 金光福군(17·〃)이 함께 실족 급류에 휩쓸려 표류하는것을 金鍾男씨(25·江西區木洞164의2)가 구하려고 물속에 뛰어들었다가 3명 모두 익사했다. 사고가 난 다리는 폭1백여m의 安養川중간부분에 평소물이 흐르는 폭이30여m일경우 永登浦區楊坪洞과 江西區木洞을 잇기위해 설치한 시멘트간이교량으로 비가 조금만와도 다리가 물에잠겨 통행이 어려웠다. 이날 숨진 李군등은 등교시간이 늦어 3㎞가량 돌아가야 하는길을 피해 책가방을 머리에 이고 40㎝가량 물이 차오른 다리를 건너다 변을 당했다.

南총리 서울水害지역시찰

南悳祐국무총리는 3일하오 서울江西區新亭洞과 安養川변 일대의水害상습지를 돌아보고 『상습수해지역대책은 우선 유수지관리를 개선해야하나 항구적인 대책으로 地盤을높이는등 방안을 강구하라』고 수행한 張元燮서울시 제2부시장에게 지시했다.

南총리는 또 銅雀區盤浦에 있는 건설부 한강홍수통제소에 들러 현황을 청취하고 『淸州댐이 완공되면 漢江水位가 얼마나낮아지느냐』고 묻는등 漢江홍수 예방대책에 관심을 표했으며 통제소관계자는 淸州댐이 완공되면漢江수위가 1.08m가 낮아진다고 보고했다.

우산 건지려다 여자國校生익사

▲2일하오 1시30분께 경기도楊平郡丹月面富安里앞富安川에 이마을 金진수씨(43)의 3녀 敬姬양(10·富安국민교3년)이 불어난 개천물에 빠져 실종된후 2시간 뒤인 이날하오3시30분께 3㎞하류에서 익사체로 발견됐다. 金양은 이날 학교수업을 마치고 귀가중 사고지점에 이르렀을때 쓰고가던 비닐우산이 바람에 날려 하천물에 떠내려가는것을건지려고물속에 뛰어들었다가변을당했다.

江原5개路線 막혀

▲강원도지방에 내린 폭우로 충북堤原郡과丹陽郡을 흐르는 남한강 강물이 불어나 堤原郡淸風面 황석나루터등 6개나루터의 차도선들이 2일상오11시부터 모두 발이묶였다. ▲堤川―丹陽간▲堤川―丹陽군永春면간▲丹陽―赤城면간▲丹陽―佳谷면간▲堤原군寒水면―岷岩里간을 운행하던 시외버스들이 운행을 하지못해 堤原郡淸風面등 4개면 강변주민들이 하오4시현재 堤川·丹陽지방으로 가지못하고있다.

▲1일 밤10시께 전남新安郡荏子面 허사도앞 2마일해상에서 닻을 내리고 새우잡이하던 珍永호(2.5t)가 심한 풍랑으로 닻이 끊기면서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조일호(3t)의 그물에 걸려 전복, 침몰했다. 이사고로 배에 타고 있던 어부 金德元씨(46·경기도甕津郡靈興面)와 姜政和씨(21·경기도平澤郡)등 2명이 실종됐다.

▲2일하오2시20분께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경기도利川郡長湖面 표교국교1년 朴미희양(7)이 폭우로 갑자기 불어난 標橋2里 냇물을 건너가다가 급류에 휘말려 실종됐다. 朴양은 이날 수업을 마치고 친구2명과함께 냇물을건너가다가 발을 헛디뎌 급류에 휘말렸다.

장마前線 主勢力 東쪽으로 이동

湖南·京畿 豪雨경보

楊平 3百19㎜내려 최고기록

서울·경기·강원지방에집중호우를 뿌렸던 장마전선의주세력이 3일상오 동쪽으로빠져나감에따라 서울·光州·大田등 일부지방은 이날하오부터 비가멎었고 영동지역을비롯한 곳곳에서는 3일에도간간이 비가 내려 남한강 유역과 전북南原지방에서는국지적인 호우현상도 보였다.

중앙관상대는 이에따라 3일 정오를기해 경기 남부지역과 호남 내륙지방에 호우경보(예상강우량 1백30~2백20㎜)를 내렸고, 이에앞서 경북 내륙지방에는 예상강우량 80~1백30㎜의 호우주의보를 내렸는데 경기 利川지방은 이날 하루동안 1백48㎜의 폭우가 쏟아지기도했다.

관상대는 장마전선이 4일부터 소강상태에들어가며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한두차례 소나기가 내리는 날씨가 7일까지 계속되다 8일부터 다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한편 지난달 30일부터의강우량은 3일 하오3시현재楊平지역이 3백19㎜로 전국최고를 기록했다.

韓國男씨 宣告猶豫 서울地法항소부

서울형사지법항소4부(재판장 李在華부장판사)는 3일 한국의원(서울鍾路區樂園洞108)원장 韓國男피고인(52)에 대한 의료법위반사건항소심선고공판에서韓씨에게 벌금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

平和統一촉진 在日동포大會

어제東京서 6千여명 시위行進도

【東京3日=宋孝彬특파원】民團은 3일 상오 11시 東京 히비야공원 야외음악당에서 6천여명이 참석, 평화통일을 위한 1·22제의 실현촉구재일한국인대회를 가진뒤 東京중심가4㎞를시위행진했다.

이날 대회는 『북한 당국이 하루빨리 무력남침야욕을 버리고 민족적 大義에 돌아와 7·4공동성명의 기본정신에 따라 남북대화를 위한 全대통령의 1·22제의를 즉각 수락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公害보상비증액 勝訴

농사망쳐 嶺南化學등 4會社상대

【釜山=聯合】공장공해로 농사를 망친 농민들이 공해공장에서 지급하는 보상비가 적다고 수령을 거부하고 현실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지 1년8개월만에 승소판결을 받았다.

釜山大生1명 구속 油印物 살포

【釜山=聯合】釜山 東萊경찰서는 2일 두차례에 걸쳐 불온유인물을 살포한뒤 달아났던 釜山大국문과 4년 金진모군(22·東萊區長箭2洞)을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illegible] <139>

趙善作 作 / 禹慶熙 畵

그림자 놀이 ㊺

이튿날 나는 아침 일찍 병원으로 돌아왔다. 오전에 수술이 두 건이나 있는 날이어서 이른부터나 고용의사를 그리고 잡혼원들이 아침 일찍부터 바삐 돌아가고 있었다. 물론 나도 예외는 아니어서 병원의 일원으로 바삐 뛰어야만했다. 그러나 내 의식은 곤충의 촉수(觸手)처럼 한 곳에만 모아져 계속해서 노영지만을 쫓고 있었다.

그녀가 과연 내게 먼저 달려올 것인가. 은애는 그녀에게 내가 했던말을 전했을까. 그랬다면 노영지는? 그러나 내 이런 의문과 긴장은 오래지 않아 해결되었다. 열시도 못된 시간에 미스노가 나 있는 곳으로 달려온 것이다. 뻔했다. 내가 떠나자 마자 은애는 내가 은밀하게 했던 말을 노영지에게 전했을 것이며, 그녀는 그에게 보고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우선 내 입을 막기 위해서 달려온 것이었다.

나는 그녀를 근처의 다방에서 기다리게 했다. 기다리는 동안 내가 무슨 일을 저질러 버릴지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그녀는 울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나는 그녀를 안심시키지 않았다. 다만 그날 병원의 형편을 간략하게 이야기함으로써 그녀가 기다려야 하는 필연성을 강조했을 뿐이었다. 삼십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해놓고서 나는 한 시간도 넘어 다방으로 갔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지? 미안해』

그녀와 마주 앉으며 내가 말하자 그녀는 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녜요. 미안한 것은 오히려 제가… 음악이 좋은데요?』

음악이 좋은 다방이기 때문에 별로 지리하지 않게 앉아 있을 수 있었다는 뜻이었다. 음악에 열중할수 있는여유. 나는 그녀의 그런 여유만만한 태도가 조금 얄미웠다.

『그래, 나한테 뭔가 고백하기로 마음을 먹은거야?』

노영지는 조금 웃었다. 그러나 그녀의 그런 미소에는 회명처럼 엷은 복잡다단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은애한테 무슨 얘길 들었군』

그녀의 질문을 향해 내가 빠른 말씨로 쏘았다. 정을 잡혀 전어먹은 그녀가 「아녜요」 하는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 보다가 끝 「네」 하고 대답했다.

『얘기하지 말랬는데…』

하고, 나는 은애를 핀잔하듯 말했다.

노영지는 잠시 몸둘 곳을 몰라 쩔쩔맸다. 그것은 내가 기대한대로였다. 어쨌든 나는 노영지를 손아귀에 넣어야만 했으며, 그러자면 수시로 그녀의 아픈 곳을 건드려 주지 않으면 안되었다.

『하는수 없지 뭐. 아무렴 친구가 더 가깝지 내가 더 가까울려구?』

『그런게 아네요. 그러잖아도 언니하고 의논을 하려던 참이었어요. 어젯밤에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그럼 내가 영광인걸』

영지는 조금 웃었다. 그러나 웃음 속의 갈등은 여전했으며, 무엇을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가, 얼마만큼은 털어놓아야 하고 얼마만큼은 숨겨야 하는가 내내 고심하는 눈치였다.

『처음 만난 전』 하고, 영지가 입을 열었다. 그렇게 말해 놓고 영지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나는 그녀가 다음말을 숨기 보다 하기 싫어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가 다음에 할말이 무엇인가 알고 있었다. 「요정 가봤지?」 하고 나는 그녀를 거들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참아냈다. 죽기보다 하기 싫은 말일수록 제 입에서 나오게 해야 한다고 나는 좀 잔인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한참만에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저어 사실은 어쩌다가 친구들이랑 어울려 술집에 잠깐 나갔었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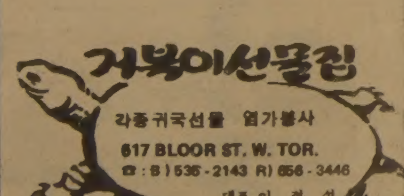
두꺼비 안의섭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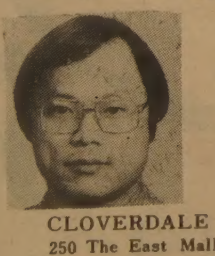
서울한의원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대한한의사협회장외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 10여회 수상.
*진료과목: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왕진함)
주소: 10 Blackfriar Ave. #216 Weston, Ont. (Kipling·Dixon)
한의사 김장석
☎: 247-9347

陳氏眼鏡公司
MARWITZ Zeiss-Gruppe West Germany
ZEISS ●고급안경취급 West Germany
Rodenstock
●콘택렌즈를 맞추시는 분께는 선글라스를 선물 합니다.
BAY OPTICAL CO. LTD.
LUCLIFF PLACE
700 BAY ST. (at Gerrard)
TORONTO, ONT.
TEL: 595-1665
FASHION OPTICAL
525 DUNDAS ST.
(at Spadina Av.)
TORONTO, ONT.
TEL: 363-0684
영업시간
●월~토 9:30AM~6:00PM
●월~토 11AM~7PM

참 행복을 원하십니까?
생명의 말씀
CITY.T.V.
CHANNEL 79
CABLE 7
SUNDAY
AM 9:3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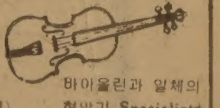

거북이선물집
각종귀국선물 염가봉사
617 BLOOR ST. W. TOR.
☎: B)535-2143 R)656-3446
대표 이 정 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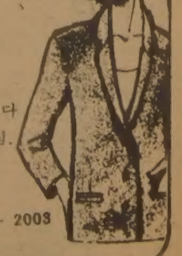
NIPPON VIDEO CENTRE
1993 Danforth Ave.
Toronto, Ont.
Tel. 698-0633
TOSH HAMAGUCHI
(하마구찌)
일본비데오센터
BETA, VHS두종류
※일본, 한국 테이프 준비됐읍니다
두종류의 테이프가 있읍니다.
●비데오테이프레코더의 판매
●비데오테이프대출(빌려줌)
월, 수, 토: 오전10시~오후6시
화, 금 오전10~8시 회원모집(특별할인)
화요일은 문 닫습니다. 우드바인서쪽 1 block

조규혁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CLOVERDALE MALL
250 The East Mall, Suit 157
Islington, Ont. M9B 3Y8
(B)233-6236, (R)745-8236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식 중국음식 뱅킷, 카드에 답아서 원하는대로 제공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월~일 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Spadina코너)
☎: 977-3142

모든 악기를 취급합니다
부속품·악기수리·대여

Remenyi
house of music
1890년에 설립

토론토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피아노 (새것과 Reconditioned)
바이올린과 일체의 현악기 Specialists
210 Bloor St. W. Tor. Tel: 961-3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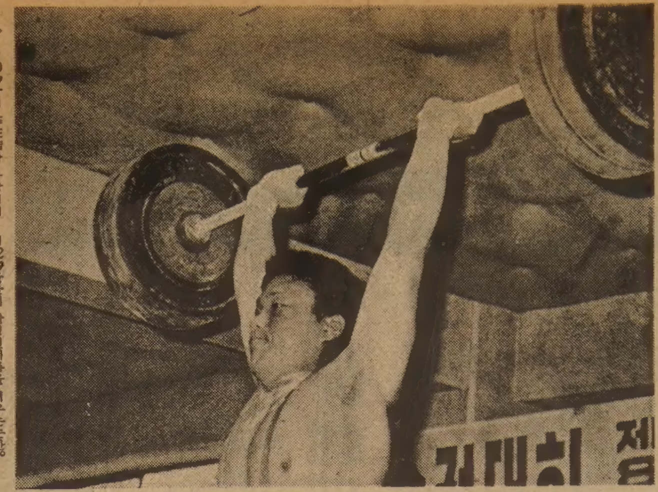
코스모스
동양인에게 어울리는 유명 메이커
숙녀복(size 5~16)
좋은 가격으로 봉사
품질 좋고 가격좋은
아동복(신생아~16)
똑같은 옷으로 다른 곳보다 저렴한 가격임을 약속드림.
월요일~토요일: 10시7시
일요일: 오후3시~7시
706 BLOOR ST. W. ☎: 534-2003


全國力道

李在浩、학생韓國新 3개

重量級 大會新19타이6개

110kg級



◇1백10kg급의 李在浩가 용상에서 1백32kg을 들어 학생신기록을 세우는 순간.

제53회 전국 역도선수권대회및 제8회 문교부장관기쟁탈 전국 시·도대항 학생선수권대회 이틀째 경기가 3일 태릉선수촌에서 열려 학생부 (1백41명) 경기를 모두 마쳤다.

이날 중량급 경기에서 한국학생 신기록 3개、대회신기록 19개 (선수권 14、문교부장관기 5개)、대회타이 6개 (선수권1개)가 쏟아졌다.

1백10kg의 李在浩 (대전체고)는 인상에서 1백5kg (종전95kg)을、용상에서 1백32kg (종전 1백30kg)을 들어 올려 총계에서 2백37·5kg (종전 2백25kg)을 기록、혼자 학생신기록 3개를 수립했다。

대회 신기록은 1백kg급의 文종근 (호남고)이 인상에서 대회신 (선수권)과 대회타이 (문교부장관기)를 기록했다。90kg급서는 金學亮 (마포고)이 인상과 용상 합계에서 모두 4개의대회신을 기록、4관왕에 올랐으며 75kg급의 韓晶燁 (백산고)도 용상에서 자신의기록을 경신하며 대회신(선수권) 3개와 대회타이 (문교부장관기) 1개를 세웠다。

◇제2일기록(종목별1위)

◆고등부 ▲1백10kg급인상=李在浩 (대전체) 105▲동용상=李在浩132·5▲동총계=李在浩 237·5 ▲1백kg급인상=文종근 (호남) 105 (대회신·종전95) ▲동용상=김진석 140 (대회신·종전137·5) ▲동총계=김진석 240 ▲90kg급인상=김학량 (마포) 110 (대회신·종전109·5) ▲동용상=김학량 150 ▲동총계=김학량 260 (대회신·종전252·5) ▲82·5kg급인상=정지후(충주상) 100▲동용상=정지후 135▲동총계=정지후 235▲67·5kg급인상=김용철 (송원) 102·5 ▲동용상=노영수 135▲동총계=노영수 232·5▲주영조 232·5 (이상문교부대회신·종전220) ▲60kg급인상=▲김지영(수원) 95▲동용상=최성규(수원) 120▲동총계=연정호 212·5

韓國선수단、루마니아로

유니버시아드參席위한 비자받아
東京주재 루마니아大使館 통해

한국 스포츠선수단이 사상 처음으로 東歐의 루마니아에 입국케됐다。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개최되는 여름철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출전할 한국대표선수단 86명 (취재기자 포함)은 2일 日本도쿄주재 루마니아대사관에서 입국비자를 발급받았다。

한국의 스포츠인으로서는 지난 5월8일부터 10일까지 부쿠레슈티서 열린 FISU (세계대학생경기연맹)집행위원회에 참석키위해 李宗夏 FISU감사가 처음으로 입국한바있으나 대규모선수단이 입국하는것은 이번이처음이다。

海外스포츠話題

西獨프로축구 2部리그 감축

南北42팀을 20개로

赤字줄이고 質높이게
4百40명 失職…스타스카웃 熾烈

◇西獨 2부리그 통합조치로 직장을 잃은 4백50여 프로축구선수들이 노동청에 몰려와 구지신청을 하고있다。

南部 20개팀、北部 22개팀등 42개팀으로 구성되었던 西獨프로축구 2부리그가 오는 8월8일부터 시작되는 西獨분데스리가 81~82년도 시즌부터는 20개팀만으로 구성된 단일 2부 분데스리가로 탈바꿈、새로운모습으로 출범하게된다。

지난해 西獨축구협회(DFB)총회에서결정된 2부리그의 통합조치는 불안한 클럽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유도하기위한것인데 이런 조치로 탈락된 22개팀에 소속되어있는 약 4백50여명의 프로선수들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신세가되었다。

새로 단일2부로 구성된 20개팀은 뮌헨1860、샬케04、바이엘·우에딩겐、오펜바하、슈트트가르트·키커즈、해센·카셀、헤르타BSC、하노바96、SC프라이부르크、바이에른·만하임、보룸즈、퀴르트、프라이부르거FC、아헨、RW에센、포투나·쾰른、조링겐、바렌샤이트、오스나부르크이다。

전의 北部 2부리가 22개팀중에서、베어메·브레멘팀과 안인트락트·브라운쉬바이크팀이 분데스리가로 올라가고 南部2부리가 20개팀가운데 다름쉬타트98팀이 분데스리가로 승격하게 되었다。

분데스리가에서 2부리가로 밀려난팀은 1860뮌헨、샬케04、바이엘·우에딩겐 3개팀이다。샬케04의 스타인 크라우스·키커즈 … 서 1백20만 마르크의 이적료를 내고 스카우트해갔고 바이엘·우에딩겐의 루드지·간더즈도 40만마르크로 포투나·뒤셀도르프로 옮겨갔다。

단일 2부팀에 끼지못한 종전의 2부리그 22개팀의 선수들은 西獨노동청에 몰려 구직신청을하는등 심각한 생계위협을 받게 되었다。

새로 탄생한 2부리그 20개팀 가운데 뮌헨1860을 비롯한 9개팀은 과거 분데스리가에서 맹활약한 팀들이어서 올시즌이 개막되면 초반부터 불꽃튀는 경쟁을 벌일것으로 전망된다。【프랑크푸르트=南玎鎬특파원】

釜山、10체급 優勝…패권

市道대항 아마레슬링 폐막

서울팀 百29點 2위

江原3위、全南은 4위 차지

◇霸者의 맹공 자유형 68kg급 준결승에서 나병남(釜山)이 권상섭(경남)과 열전을 벌이고 있다。나병남은 권을 물리친뒤 결승서 김수한마저 판정으로 누르고 우승했다。

제7회 대통령기쟁탈 전국 시도대항 아마레슬링대회가 3일 東國大체육관서 열려 釜山이 종합점수 207·8로 우승、2년만에 패권을 되찾았다。서울은 1백29점으로 2위、85·7점을 얻은 江原은 3위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수승팀 全南은 4위로 밀려났다。

그레꼬로망형과 자유형 각 8체급서 토너먼트로 벌어진 이번 대회에는 1백20여명의 선수들이 출전했다。釜山은 그레꼬로망형과 자유형 모두 16체급 가운데 10개체급서 우승을 휩쓸어 큰 점수차로 종합우승을 거두었다。

그레꼬로망형 주니어 플라이급 (48kg)에서 강호 朴淌注(전남)는 김주경 (강원)、박경일 (전북)진영특 (부산)을 차례로 폴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결승전적

◆그레꼬로망형
▲48kg 박유주(전남) 폴 진영특(부산)
▲52kg 신영국(부산) 판정 김정랑(전북)
▲57kg 배혁(부산) 폴 김희연(전북)
▲62kg 김희섭(부산) 폴 임준(서울)
▲68kg 김춘환(서울) 판정 이계남(부산)
▲74kg 김성훈(부산) 폴 김영남(서울)
▲82kg 이헌창(부산) 폴 송준하(전남)
▲90kg 차봉준(부산) 판정 이상훈(부산)

◆자유형
▲48kg 김오현(경북) 판정 노경서(전남)
▲52kg 손장흥(부산) 폴 김충수(강원)
▲57kg 허정호(부산) 판정 권오창(서울)
▲62kg 김수길(서울) 판정 박두성(강원)
▲68kg 나병남(부산) 판정 김수한(서울)
▲74kg 한명우(서울) 판정 박영조(부산)
▲82kg 양봉석(부산) 폴 김성태(전북)
▲90kg 정용균(서울) 폴 권오범(부산)

▲종합=①부산207·8 ②서울129 ③강원85·7 ④전남78·9 ⑤전북70·1 ⑥경북29·6 ⑦경남27·3 ⑧경기14

남녀高校올스타籠球개막

弘大附高、大京 눌러

培聖도 崇義와 시소끝에

제1회 서울시 농구협회장기쟁탈 남녀고교 올스타전이 남고부6개팀、여고부 3개팀이 출전한 가운데 3일 장충체육관에서 개막되었다。첫날 남고부 1회전서 弘大附高올스타팀은 郭長錫、梁東鶴의 숫파 楊南喆이 게임을 풀어나가 후반 슛이 부진한 大京올스타에 74-70으로 역전승、徽文올스타와 결승진출을 다투게 되었다。

한편 여고부리그에서 崇義올스타와 培聖올스타의 대전서는 골을 주고받는 치열한 접전끝에 배성올스타가 51-46으로 득승、1승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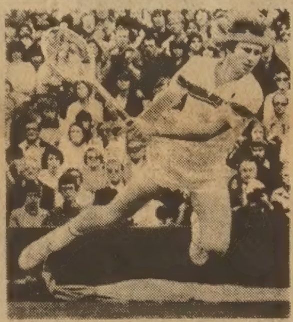
이번대회 남고부는 토너먼트、여고부는 풀리그로 패권을 가린다。이날 弘大附高올스타와 大京올스타의 대전서 大京은 전반 林鎭鎬、尹在根의슛이 호조를보여 기선을 잡았다。弘大附高는 신장이 약간 달리는데다 郭長錫의슛만이 제페이스를발휘했고 다른 주전의 컨디션이 부진、고전했다。

후반 弘大附高는金鎭高이잇달아인터셉트에성공、41-40으로 전세를 뒤집은후 게임의 주도권을 잡았다。弘大附高는大京의 林鎭鎬 尹在根의 슛을 철저히 막고 주전들이 고른슛을 한데다 楊南喆이 이끄는 팀플레이에 힘입어 74-70으로 역전승했다。

◇제1일전적 ▲남고1회전 弘大附 74 (39-32, 35-38) 70 大京올스타 ▲여고부리그 배성올스타 51 (26-23, 25-23) 46 숭의올스타 (1승)

홍콩僑民 골프大會 孫相龍씨 우승차지

【홍콩支社】한국일보홍콩지사장배쟁탈 친선골프대회가 6월26일 이곳 석계지의 환킹골프장에서 교민골퍼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거행됐다。한국일보창간27주년을 기념하기위해 마련된 이골프대회서 원로골퍼 孫相龍씨 (핸디7)가 우승했으며 준우승은 안기석(핸디16) 재보험공사 소장이、3위는 김주관한국마벌지사장이 각각차지했다。



◇윔블던 사상최초로 6연패를 바라볼수있게된 스웨덴의 테니스 스타 비외른·보리(右)와 천부적인 재질을 지닌것으로 알려진 美國의 존·매켄로가 윔블던 테니스대회서 패권을 겨루게됐다。

보리、첫 6連霸 눈앞에

윔블던테니스 매켄로와爭霸

【윔블던2日UPI=聯合】윔블던5연패의 기록을 보유하고있는 스웨덴의 테니스 스타 비외른·보리는 2일 윔블던중앙코트에서 열린 남자단식준결승에서 美國의 지미·코너즈와 풀세트접전끝에 3-2 (0-6、4-6、6-3、6-2、6-4)로 이겨 윔블던사상 최초의 6연패를 바라볼 수있게됐다。

한편 美國의 존·매켄로는 소수자레나 심판에항의하는 소동끝에 濠洲의 신예 로드·프롤리를 3-0(7-6、6-4、7-5)으로 와파、결승에서 비외른·보리와 맞붙게됐다。

◇준결승전적 (남자단식)
보리 (스웨덴) 3 (0-6 4-6 6-3 6-2 6-4) 2 코너즈 (美國)
매켄로 (美國) 3 (7-6 6-4 7-5) 0 프롤리 (濠洲)

漢陽大팀 파견키로 10월 泰퀸스컵축구

대한축구협회는 오는 10월2일부터 10일까지 泰國 방콕에서 열리는 제11회 퀸스컵대회에 漢陽大팀을 파견키로 결정했다。漢陽大는 금년도 대통령배 준우승팀인데 우승팀 企業銀行이 印度에 원정케되어 퀸스컵대회 출전권을 획득했다。

流星의 賦 <122>

李炳注 作 李友範 畵

亡兆의 日月⑧

병자년 2월 즉 선조9년 이이가 조정을 떠날 무렵 정철에게 보낸 편지는 나라를 위하는 마음의 진실토하여 이이의 학자적 정치가(學者的政治家)로서의 면목을 선명하게 부각시킨 명문장(明文章)이다。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말로 고쳐본다。

『형(兄)께선 이 사람 즉 김효원을 음흉 소인으로 여겨 효원이 필시 나라를 어지럽히고 사림(士林)을 해칠것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를 이름 내길 좋아하는 사람으로 봅니다。만일 주위의 공론(公論)이 효원을 지지한다면 그는 용히 충성을 나할 것이오。공론이 그를 용납하지 않는다면 여지를 부려 나온 짓을 찾을 그런 인간은 아닙니다。만일 그가 직접 권력을 쥔다면 혹시 일을 그르칠지 모르지만 방불한 인물의 배하(配下)에서 일하게 되면 그 재주를 충분히 발휘할 것입니다。그를 너무 미워하고 심하게 배척하면 그를따르는사류(士類)들의 불만은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형은 매양 그가 후일의 화를 만들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지만 그렇지가 않소이다。만일 그의 사람됨이 형의 말과 같아서 후일 요직(要職)에 앉았을때 조그마한 원한까지 잊지 않고 보복하는 태도로 나와 사림(士林)을 죽인다면 그때에 형은 선견지명(先見之明)을 자랑으로 하여 웃으며 즐길수 있을 것이오。나는 그를 용렬한 죄로 잔악 하다는 이름을 얻어 백세(百世)가 되도록 그 오명을 씻지 못할 것이니 후환(後患)은 나에게 있고 형에게 있는 것이 아니잖소이까。그런데 어찌 형은 그다지도 걱정을 합니까。되풀이 하건대 대저 김효원은 명예를 좋아하고 세력을 좋아하는 까닭에 어진 선비들과 사귀고 있는 것이고、이익과 벼슬을 탐하여 몰염치한 짓을 할 사람은 아닙니다』

필자가 어설픈 의견을 붙인다면 나는 이 편지를 읽고 에이브러햄·링컨의 어떤 편지를 읽었을때와 비슷한 느낌을 가졌다。대의(大義)와 우정(友情)을 동시에 염두한 섬세한 감정의 자락이 육간으로 보이는듯 했기 때문이다。

정철은 이이가 보낸 이 편지를 읽고 적잖게 감동한 바 있었다는 것은 그후 그가 취한 김효원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안다。김효원에 대한 정철의 태도가 훨씬 부드러워 진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았다。김효원을 둘러싼 바람이 너무나 거세어서 이이의 충고를 관철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다。

구봉령、김우옹、홍혼(洪渾)은 김효원에 대한 조정의 처우가 지나치다고하여 벼슬을버린다가하면 한때 김효원이 [illegible] 이순인(李純仁) 마저도 자기가 천거한 정승 윤현(尹晛)이 반효원파(反孝元派)라고 하여 싫어했다。

좌의정 박순과 대사간 허엽은 서화담(徐花潭)문하의 동문인데도 [illegible] 서로 절교(絶交)하고 말았다。박순은 허엽이 젊은 사람들의 선두에 서서 김효원을 싸고도는것이 심히 아니꼬왔던것이다。

박순은 [illegible] 허엽이 자기에겐 없는 [illegible] 을 알고 사직하고 [illegible] 이화장 [illegible] 소용을 [illegible] 이를 [illegible] 에서 [illegible] 어느 [illegible] 의 보석에 [illegible] 여념이 없었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서

Please enter my subscription

NAME ....
ADDRESS .... APT
CITY .... PROVINCE ....
POSTAL CODE [ ][ ][ ] [ ][ ][ ] PHONE ....

* 한국일보 1년 $90.00、반년 $46.00
* 주 1회 주간한국 무료제공 □ 1년
* 주 6일 (매 8면) 발행, 신속우송 □ 반년

Office Use Only Sub Date ....

Mail this card today !

한국일보사에서는 독자들께 빠른 소식을 전해 드리고저 주2회씩 하던 식품점 배달을 주3회씩(월, 수, 금)오후에 하고 있읍니다.

구독 및 광고문의 (416) 533·2361

한국일보 THE KOREA TIMES 週刊韓國 주간 女性

신문판매처

고려식품 서울식품
동양식품 삼복식품
반도식품 한국관
한국식품(본점) 한국일보사
〃 (동부)
써니식품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나의 이력서

<題字·玄信圭>

玄信圭 ⑺⑻

山林廳 발족

林學會·國會등 건의로 어렵게 탄생

◇69년 5월 서울에서 처음열린 FAO亞太지역임업회의에서 의장을 맡은 筆者가 각국대표들을 영접, 목재교역에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원내는 初代산림청장 金英鎭씨)

初代廳長 金英鎭씨 機構확장·통계시정등 活躍

아내의 삶

청소부 元順節씨

어진 남편에 두 孝子아들 마음은 언제나 富者지요

네식구合心…구두쇠생활 結婚 14년만 「내집」마련

한달食費 10만원…"한푼이라도 더모아 老後엔 旅行이라도 다니며 살아야죠"

공무원의 아내이며 자기자신도 직장을 갖고있는 元順節씨(42)는 매일새벽 5시20분에 出勤에있는 집을나선다. 아직 곤히 자고있는 남편과 두아들의 아침상은 그 전날밤에 차려서 부엌에 놓아두고, 밥도 그전날밤에 지어서 보온밥통에 담아두곤 한다. 그가 청소부로 일하는 서울 鍾路의 한빌딩에 도착하는 시간은 7시30분. 오후6시까지 그는30여명의 동료들과함께 빌딩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며 바쁘게 지낸다.

黃鷺도 10마리 발견

충남燕岐 백로棲息地서

磁器 2百47點 인양

新安 海底유물 발굴현장

韓·日꽃꽂이세미나

平生교육 관계講演

새대교실 학생모집

鄭아쉬 피아노獨奏

出協大學강좌 열어

女優 尹姸景양컴백 「내모든것 빼앗겨도」

◇尹姸景

文化映畵人協會 회장에 尹봉춘씨

ORIENTAL PALACE LTD.
뉴―서울
529 BLOOR ST. W. TORONTO, ONT.
전화 : 533—3545~6, 533~1500
스시빠—신설개업중

이스턴 후로라 무용단

이스턴 후로라— 무용단은 처음 북미를 방문하여 오리엔탈 파레스에서 첫 공연을 갖게 되었음을 알립니다. 앞으로 뉴―욕과 라스베가스에서도 공연이 약속된 이스턴 후로라에 기대를 가지면서 자신을 갖고 여러분을 모시고저 하오니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박 인 순 배

피로연, 회갑잔치, 각종 대소 파―티 예약환영

연중무휴—(일요일은 오후4시부터 10시까지)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주식회사
신의상사
취급품목 ◆담배류
◆쵸코렛및 캔디류
◆GROCERY BAG류
116 TYCOS DR. TORONTO
TEL. 781-6669 • 781-6660 • 781-6012
대표 문인식

블론디 칙·영作

"집에는 별고없니, 엘모야?"
"넌 아직도 [illegible] 겠다고 [illegible]"
"아뇨, 제나름으로 배운게있어요"
"지난번 집을나가버리겠다고 했더니 모두들 잘됐다고 기립 박수를 쳐주더군요"

김 임 규
RIA
ACCOUNTING
&
TAX
964-0178

드라이 플라워 流行

재료는 장미등 거의 모든꽃
自然상태나 脫·染色해 말려
꽃병·盆에 꽃꽂이를

[illegible] 꽃이 [illegible] 꽃을 말려두었다가 冬中그아름다움을 즐길수있는 꽃말리기가 요즘 유행이다. 꽃말리기는 누구나 어렵지않게 할수있고 한번 말려두면 몇년동안 감상할수 있는데 鄭仙愛씨(仙愛꽃이 회장)로부터 그 방법을 들어본다.

—전문가에 알아본 方法과 裝飾요령—

◇鄭仙愛씨

재료 에 쓰이는 꽃 [illegible] 나오고 [illegible] 있는 장미, 안개꽃, 수레꽃, 마가렛, 엉겅퀴 [illegible] 너무 [illegible] 향기와 잎도 싱싱하게 빛나는것을 고른다. 안개꽃도 말리면 여전히 그 아련한 분위기를 잃지않고, 수레꽃도 예쁜빛깔을 그대로 간직한채 마른다.

집에서 할것은 너무 여러가지를 말리지말고 한두가지만 택한다. 여러가지를 함께 꽂으면 지저분해지기 쉽다.

말리는 법 으로 자연 그대로 말리는법과 탈색·염색을해서 말리는법, 그리고 방충제나 건조제등 약품처리를 해서 말리는법이 있다. 집에서 꽃을 몇단씩 말려서 쓸때는 자연 그대로 말리는것이 가장 손쉽다.

장미등 꽃을 사다가 원하는 모양대로 다듬고 한묶음씩

꽃봉이 모두 좋은 재료이다. 이밖에 수수, 조, 부들, 연밥, 솔방울, 삼목나무, 망개나무, 까치밥, 갈대, 탱자나무, 고사리잎등 거의 모든 식물을 말려서 쓸수있다.

가장 인기가 있는것은 장미. 꽃시장이나 거리의 꽃장수에게서 색색으로 몇단씩 사다가 말려두면 친지들에게 줄 선물용으로도 훌륭하다. 너무 활짝 핀것보다는 봉오

◇잔가지 등과 나뭇가지, 꽃을 말리면 훌륭한 꽃꽂이 소재가 된다.

[illegible] 훑어서 바람이 잘 통하고 그 [illegible] 하는 그늘진곳에서 말린다. 크리스머스·트리등 특별한 [illegible] 장식으로 쓸 나무는 말린후 페인트칠을 하기도하고 [illegible] 이나 숯을 바르기도한다.

탈색할때는 [illegible] 산화수소를 물에타서 소재를 담갔다가 탈색이되면 물에여러번 헹궈서 말린다. 보통탈 [illegible] 자가시, 고사리잎, 蘭잎등을 탈색하는데 알맞은 어느정도 물기가 가신후 종이에 싸서 책갈피등에 끼워서 말린다.

꽃꽂이 마른소재는 그냥 꽃병에 꽂아도 되고 꽃꽂이를 할수도있다. [illegible]

[illegible]

花器가 비싼 陶瓷에서는 [illegible] 고와다. 처음에는 [illegible] 그 흉한 아름다운 [illegible] 끼기위해 마른소재를 [illegible]

文益漸선생사당등 補修

◇전남長興郡은 3일 올해 8백만원을들여 목화씨를 전래한 文益漸선생의 사당 江城書院과 安貞福의사의 사당인 萬義祠를 보수키로했다. 郡은 우선 비가새는 사당을 보수하고 원형대로 도색할 계획이다.【長興】

張吉山 (1605)

黃晳暎 作
崔然石 畵

第四部 彌勒逆謀 第一章 (65)

『에헤그 어머니 고집두… 까막내두 마다하시구…또 장두령님께두 안가시겠다더니 여하튼 잘오셨어요』

백련이가 허를 차며 중얼거렸다.

『수복이 복구쇠다구, 정신만드시면 염불하듯 외십디다』

안두당은 요 며칠 사이에 기력이 쇠잔하여졌는지 볼도 움푹 패이고 눈꺼풀도 얇아보였다. 길산이 고개를 숙이고 있으려니 제화가 말하였다.

『내가 노인네들 임종을 평생 보아와서 아오만, 얼마 안남으셨수. 그리구 당신두 아시구 막울곳 결하여 노셔다우』

길산은 하릴없이 고개를 숙이고 안두당의 손을 잡고서 들여다야 있었다. 손가락이 울컥울컥하더니 움직이기 시작하고 머리가 옆으로 움직였다. 길산이 박가와서 손을 [illegible]

[illegible] 보았다.

『자비령에 자시자니까 이렇게… 적막하재… 용서하십시오』

『원별 소릴 다한다. 너 자꾸 왕래하다 관에 포착되지 않겠느냐. 그저… 자중해야 하느니란』

『제 염려는 마십시오』

『수복이 잘있지야?』

『예, 할머니가 보구싶다구늘 그런답니다. 사람을 보내어 수복 에미랑 오라구 하겠읍니다』

안두당은 눈을 살짝 감았다 뜨며 보일듯말듯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나 안봐두 다 볼수가 있어. 너희 아부지두 매일 만난다. 내가아무래두 염라국으루 가려나보다. 사자님이 지척에서 기다리시는 걸 잘 알지』

『어머님 더 오래…사셔야지요』

『오래?』

안두당은 다시 배시시 웃었다.

『나는 이승 저승 같을 오가며 살아 왔어. 오래 살아본들 무엇하며 이제 간들 또한 무슨 미련이 있겠느냐. 나는 탑고개 살적이 가장 좋았어. 느이 아부지 철마다 출행 나가지 않는게 어찌그리도 좋든지』

안두당이 말을 많이 하기가 힘겨운지 다시 눈을 감으며 소곤거렸다.

『우리 길산이… 가엾은 것』

안두당은 눈을 감더니 다시 호흡이 느려지며 잠시후에는 혼미한 가운데 빠지는 모양이었다. 길산의 [illegible]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illegible] 이래 보여두 [illegible] 하게 [illegible]』

[illegible] 라오시랍니다』

[illegible] 하여 길산은 겨우 일어났다. [illegible] 붙어 오르니 풍열은 안두당의 삼장이 얼마가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아예 여기서 장사를 치르고 갈 생각을 해두라는 것이었다. 오진압에 여환파 이경순파우대용이 올라가 있다고 하여 길산과 김기 선흥이는 함께 올라갔다가 길산이란 아래로 내려와 지내기로 하였다. 길산은 여러가지로 마음이 착잡하였다. 이번겨울부터 봄까지 그는 정겨운 사람들을 하나 둘씩 떠나보내던 것이다.

T. P. ADVERTISING GROUP
바우종합광고회사
●간 판 부 : 각종간판 · 윈도우 싸인 · 쇼-카드전문
●그 래 픽 디자인부 : 신문광고 · 상업디자인 · 비지네스및 개인명함 회사나 단체 마-크 · 각종포스터및 팜프렛
●인 쇄 부 : 도서(책자) · 편집및 출판(광고지 포함)
637A BLOOR ST. W. TORONTO.
☎ 535-0647. 0545
대표 송 관 현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조 지 섭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30, 630-8401

구인

지렁이 잡이구함(유경험자에 한함)
최고가격 $20.00
☎ : 255-0730

좋은 농장, 좋은 골프장
최고대우 $20.00
☎ : 532-3637 미스타 게

경험있는 지렁이 잡으실분 : 대우좋음
MR. JIM OR NICK 1000마리당 $[illegible]
☎ : 531-0474

유경험자 지렁이잡이구함 PETER K[illegible]
LIVE BAIT 좋은 농장, 승용차로 지렁이 [illegible]
구합니다. 좋은 대우 ☎ : 533-0910 피터

경험있는 여자 캐쉬어 구함
풀, 파트타임
☎ : 742-0800 미스타 차

밀크 스토아 케쉬어구함 : 풀타임과 파트[illegible]
(유경험자 원함) DOWNTOWN지역
☎ : 925-0339

싸타일 남자 헬퍼구함
846 MARKHAM RD.
☎ : 438-1528

웨이트레스 풀타임1명, 파타임 1명
주말에 주방일 도우실분 1명
☎ 532-2727

남학생 가게 헬퍼 구함
261 SCARLETT RD.
☎ : 767-0762

초저녁 사무실
청소할분 구함
☎ : 977-1110

정원사 헬퍼 풀, 파타임 구함
55세 이상, 영어필요없음
☎ : 653-8173(오후7시이후) 미스타 김

거주 하셔서(5일/W.)석달된 여자애기[illegible]
여자애 돌봐 주실분
☎ : 444-5778 미세스 Chalambalacis

재봉사 구함 (남·여)
●약간명 ●유경험자 ●[illegible]
●핸드백 만드는일
인터뷰 원하시는 분은
CALL 251-2543 AVIS

도넛샵에서 일하실
1. 풀타임, 파타임 여자분 구함
2. 남자 1명 밤일 하실분
☎ : 531-2689

입주하셔서 두 애기 봐주실분 구함
$400~$450
☎ : 783-0683(낮), 665-4853(밤) 미세스 [illegible]

재봉사 구함(LADIES' SPORTSWEAR)
번봉, 오바로꾸, 단, 풀타임, 파타임 or PIECE WORK
292 PARLIAMENT ST. AT DUNDAS ☎ : [illegible]

매매및 임대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 : 656-7753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
주매상 $5000 (Brimortone×Orton Park Rd.)
956 BRIMORTONE DR. SCARB.

베커 프렌차이즈)스토아 매매
825 ST. GEORGE ST.
☎ : 924-7696 미스타 리

아이스크림 기계 팝니다 :
☎ : 535-7772, 439-8885 (오후6시 이후)

그로서리 버라이어티 스토아 이주관계상
매매코자 함. 2 베드룸 달려 있음
☎ : 259-8139

버라이어티 스토아 팝니다 :
주매상 $2800, 렌트 $340, 리스5년, 2층에 3베드룸 [illegible] $375
☎ : 635-1038

자동차 매매 : 76년도 핀토 · 스테이숀 [illegible]
POWER핸들, POWER브레이크(40,000마일)
☎ : 742-0434 좋은 콘디숀임

밀크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도
ASKING 17000+스탁
511 MARLEE AVE. NORTH YORK

SMOKE & GIFT SHOP매매 : 주매상 $[illegible] 리스5년
+5년 옵션 게임수입으로 가게운영비용 [illegible]
☎ : 1-335-8946 ASKING $75000+스탁

성업중인 BAKERY 매매
TOTAL PRICE $130,000 7만달러 다운페이
CASH원함
1603 CLARKSON RD. MISSI. (오후 [illegible])
7시 까지 미스타 김

밀크스토아 매매
주매상 : $6000 이상, 리스5년, 옵션10년
전화번호 : 822-03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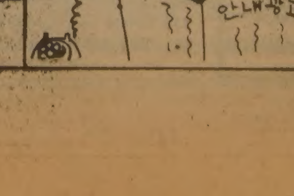
12년동안 계속 성업중인 비지네스 매매
MEAT및 이와 관계있는 품목 취급, [illegible]
BAR등, 고정손님 있음, 쿨러, 냉동기, [illegible] 냉장고.
그로스 년 $600,000
☎ : 449-1710 Call. VINCE CAIRO
PETER L. MASON LTD.

번잡한 노스·욕 몰안에 있는 스토아 매매
신산한 쥬스, 요쿠르트, 아이스크림, Fast Food취급
자동기구 완전 구비되었음, 남편의 [illegible]
매매코자 함. 그로스 Profit : 주매상 $[illegible] 73%
Asking : $40,000 ☎ : 249-[illegible]
(CALL ONLY 7 : 30PM to 10 : 00PM) ZABINA

가게 렌트
●영·스트릿(새 교외지역)에 있는 아주 [illegible]
(가게이름 : VALDI DISCOUNT FOOD STORE)
●자본이 있고 경험이 있으면 높은 이윤일 [illegible] 가능
●전화연락 : MRS. POPP(223-1606)

그로서리, 과일과 야채, 마른음식등
식료품을 취급하는 가게 매매
많은 아파트 빌딩으로 둘러 쌓여 있는 [illegible]
위치에 있으며 크기가 양쪽 1700피트, [illegible] 시간에
경영할수 있는 비즈네스.
주매상 $3500 이상 가능, 낮은 렌트, [illegible] 이유상
팔고자함.
ASKING $18900(많은 EQUIPMENTS, 쿨러)+스탁.
☎ : 425-1255

성업중인 하드웨어
스토아 급매
하드웨어 비즈네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에게는 절호의 기회임. [illegible] 좋은 장래성, 좋은 가격임.
전화 : 741-4520
CALL JOE



한국일보 안내광고란을
이용하세요.
533-2361-4
1025 Dupont St.

악기점

피아노 :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음대 졸)
☎ : 781-0200

카펫 · 카텐

카펫 크리닝 ●카펫 ●소파 ●췌어 ●타일 ●하드우드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스트리핑 & 왁스)

시설및 수리

L. N. ELECTRIC MOTORS LTD.
각종 전기 모터 수리및 신 중고품판매(40여년의 연륜)
☎ : (B) 661-5667, (R) 742-9450 MR. 김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님파 · 김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 751-5851 이 동 환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꽂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제인 · 파크 꽃집〉
*각종 꽃종류, 조화, Plants취급. *꽃꽂이, 생일, 결혼, 장례꽃 전문. *어디든지 배달가능합니다.
☎ : 769-0609 여 정 용

All Languages Service
"Helping People to Communicate"
ALS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in over 70 Languages
French for the Quebec Market
Suite 1105, 67 Yonge St., Toronto, Ont. M5E 1J8 361-0303

광고료 · 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미 용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킴스미용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에어콘·히팅·냉장고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 221-5441 센츄리 냉동(원종성 · 이인식)

에어콘 · 냉동 · 전기 · 히팅 · 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활 영

각종냉장고 (가정용및 상업용)
ELECTRIC STOVE수리전문
☎ : 466-4304, 469-3341 박 기 [illegible]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이삿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리 운 수

한 방 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자동차수리

자동차 수리 일체 :
20 ROGERS RD.
☎ : 651-9324(B), 226-5430(R) 변 달 원

인 쇄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illegible] REXDALE BLVD. ☎ : 746-0675 박 동 남

기 타

아파트 세 놓음 : KING & LANSDOWNE
2층 1베드룸, 지하실 2베드룸
☎ : 536-4250(오후6시이후) 이 대 환 부 동 산

병원 감독자가 될 수 있는 코스를 택하고 싶으신분
시간당 $7, 일주일 코스
☎ : 961-1057

SAY CHARGE IT!
WE HONOR
master charge
오시지않고
광고를 내시는
편리한 방법이지요.
CALL 533-2361
한국일보사 광고국